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구·군 문화회관(해운대, 을숙도, 금정, 동래, 영도), 부산시민회관, 감만창의문화촌, 조선통신사역사관, 사상인디스테이션, 흥티아트센터, 도시철도 북 하우스, 또따또가 운영센터, 영화의전당, 부산 시립미술관, 영광도서관, 부산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포처 문의 : 051-745-7224 이메일 : bscf@bscf.or.kr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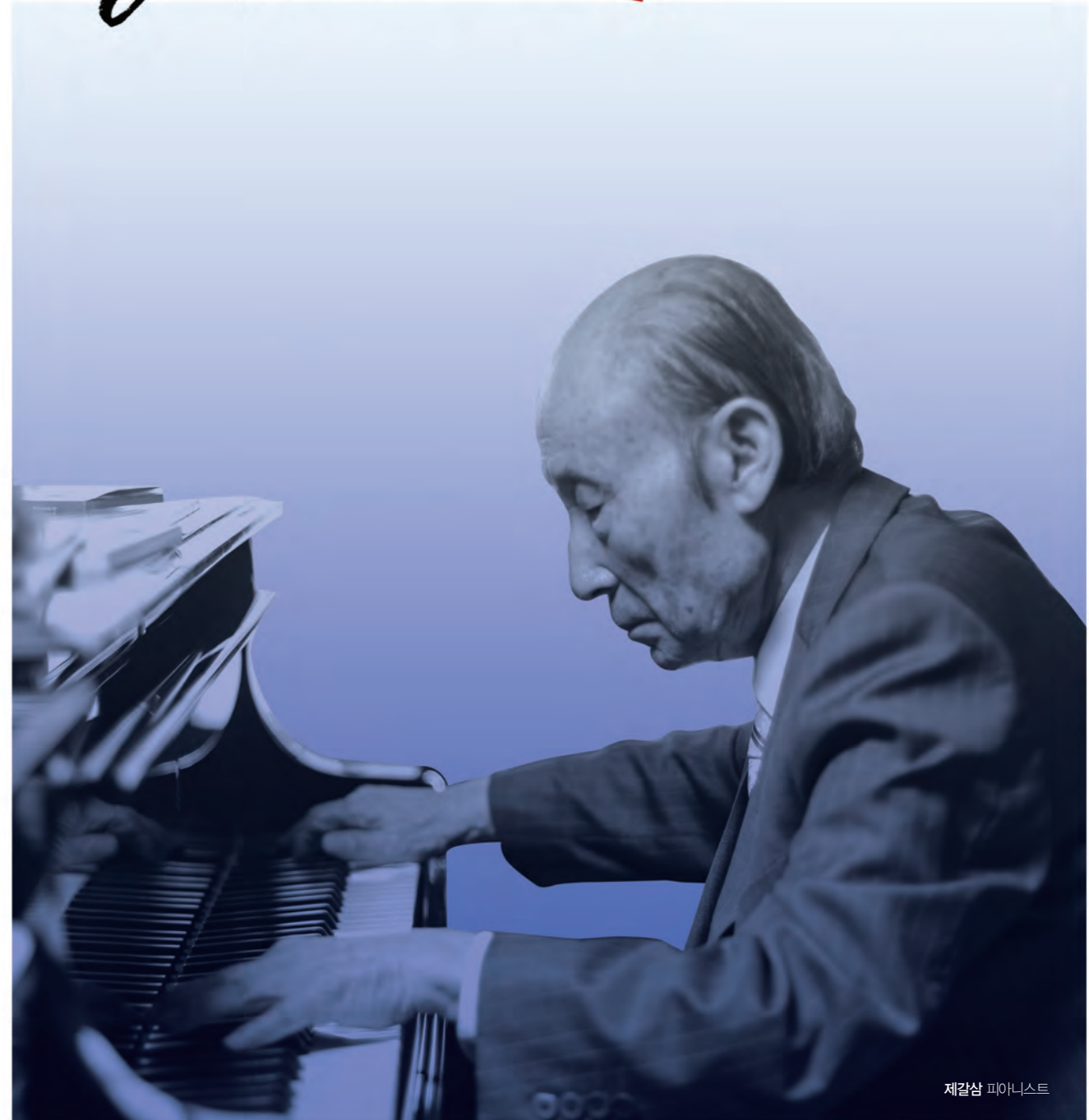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www.bscf.or.kr



문화예술정보지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29 Summer 2018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29 Summer 2018



제갈삼 피아니스트

부산문화재단



08

어는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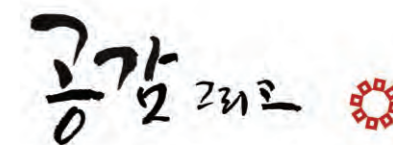
04 뜨거웠던 그 여름, 부산 예술도 함께 뜨거워지리라

공감의 뱃고동

- 08 Space | 부산현대미술관, 동시대 미술과 부산 문화예술의 새로운 이정표
- 14 Harmony | 부산발(發) 남북 문화교류 진단, 안으로는 성취감! 밖으로는 평화!
- 18 Issue | 민선 7기 부산문화정책에 바란다
- 22 People | 음악과 함께한 인생, 국내 최고령 피아니스트 제갈삼



50



문화예술정보지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돌아와요 부산鄉愛

- 50 니, 그거 아냐? | 숨어있는 보물찾기 우암동 소막마을
- 56 누꼬? | 부산 연극 문화의 지평을 넓힌 프로페셔널 김동규 교수
- 64 거 가봤나? | 도시의 섬 매축지 골목

공감 Review

- 30 +, Plus | 부산국제사진제 그리고 포토 갤러리 051의 '부산은 사진이다'
- 34 -, Minus | 거리로 나온 예술,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



30

그리고 재단

- 72 듣기 | 문화예술 매개자의 역할과 가치에 주목하며 부산문화재단에 바란다!
- 74 말하기 | 삶의 심포, 부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 76 보기 | 7월, 8월, 9월 주요행사



72



44

B-side

- 44 B-side | 개성과 개성이 느슨한 연결고리를 갖는 곳 독립서점



커버스토리 _ People

음악과 함께한 인생,
국내 최고령 피아니스트 제갈삼 선생님을 만나다

문화예술정보지 「공감 그리고」

등록번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 6. 23 발행일 2018. 8. 25

발행인 유중목

담당부서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 051-744-7707 www.bsct.or.kr

편집위원 이재희 문진우 양화니 정민정 정상도 이연승 홍동식

편집기획 박승환 안혜민

디자인 및 제작 효민디앤피

뜨거웠던 그 여름, 부산 예술도 함께 뜨거워지리라

글 홍동식 부경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본지 편집위원

이번 여름은 유난히 뜨거운 날의 연속이었다. 인간은 환경에 이렇게 많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인간의 감정과 사고 또한 환경의 부산물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예술 또한 마찬가지로 주위 환경의 영향으로 형태와 모습이 재창조된다. 문화적 부분에서 부산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 이유는 예술적 환경이 부산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며, 서울과 동떨어진 섬나라와 같은 곳에서 문화적인 목마름과 갈구를 위한 감각조차 부재하다고 답할 수 있다.

사진제공 부산현대미술관

그러나 부산시의 예술적 환경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인지, 혹은 탐미주의의 탐닉의 결과물인지 뜨거운 여름의 시작과 함께 부산현대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 중 예술의 가장 큰 변화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와 20세기에 전 세계를 덮은 전위예술, 아방가르드라고 할 수 있다. 부산현대미술관이 우리의 예술 환경을 지배하는 전위(傳位), 즉 아방가르드와 같은 역사적 터닝 포인트가 되어 주길 바란다.

20세기는 예술에 있어서 아방가르드의 시대였다. 그래픽디자인 또한 아방가르드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함께 흔들리며 정립되었다. 아방가르드는 20세기 초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자연주의와 의고전주의(擬古典主義)에 대항하여 등장한 예술운동이다. 전위(Avant-Garde)란 본시 군대용어로, 전투할 때 선두에 서서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부대라는 뜻이다. 이것이 변하여 러시아혁명 전야 계급투쟁의 선봉에 서서 목적의식적으로 일관된 집단으로서 정당과 그 당원을 지칭하는 어원이 되었다. 그것이 나중엔 예술에 전용되어 끊임없이 미지의 문제와 대결하여 이제까지의 예술개념을 일변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예술 경향 또는 그 운동을 뜻하기에 이르렀다.

아방가르드는 하나의 사조도 철학도 아니고,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처럼 역사적 시간의 틀을 제공하는 개념도 아니다. 새로운 예술, 젊은 예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렸지만 보편적으로 아방가르드라는 개념은 지적 급진성을 띄는 특정한 문화적 실천을 대변하는 대명사였다. 예술 분야에서 아방가르드라는 개념은 20세기의 구체적 상황에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모더니즘과 충돌하거나 모더니즘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미술 경향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공감 그리고>의 공감의 뱃고동에서 다룬 첫 번째 기사가 되었듯 부산현대미술관이 부산의 예술이 돌격 앞으로 하는 전위적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20세기 또한 급변한 사조와 과학적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급급한 세상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 또한 매일 전쟁 같이 급급한 시간의 연속이라 생각된다. 부산은 예술에 있어 치열함은 늘 예외로 느껴진다. 평온한 일상 속에서 해운대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함께 예술에 있어서는 소통을 위한 치열함이 보이지 않는다. 부산문화재단의 로고를 살펴보면 한글의 바시모ㅎㅈㅅ 초성들로만 구성된 시각요소들로서 그중 ㅅ은 사람인(人)의 뜻으로 부산의 다양한 예술인들이 함께 사이 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붉은색 또한 부산에서 연상되는 푸른색과는 동떨어지지만 급진적이고 약간의 힘을 실은 아방가르드의 대표색으로 보인다. 색과 형태에 부산문화재단이 부산 예술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 보인다.

이렇듯 부산은 한 번 더 부산 예술을 위한 아방가르드가 필요하다. 북한과의 물꼬가 트여 부산에서도 북한의 예술이 곧 함께함을 시사하고, 부산시장의 교체로 <민선 7기 부산문화정책에 바란다>를 이번 호에 실었다. 좀 더 애절하고 강한 바람이 요구되지만 민선 7기가 정녕 부산 예술의 아방가르드와 같은 변화의 역할에 일조하기를 더욱 바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정 음악과 함께한 한 세기의 피아니스트 제갈삼 선생님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20세기 초부터 아방가르드의 시작이었으니 아방가르드와 함께한 부산의 예술인으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부산에 계시다는 사실 또한 예술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예술 환경이 되리라.

부산의 해안가에서 볼 수 있는 거리 예술문화의 발전성의 진단, 출판문화의 실험성과 급진성을 잘 대변하는 독립 서점의 어려운 모습도 풀었다. 저자는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시각디자이너로서 출판과 잡지 제작에 유난히 관심이 많다. 하지만 부산은 도시 규모에 비해 출판과 독립서점이 작아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기사로 전달한다.

부산 연극 문화의 시대흐름과 동향을 김동규 교수님의 인터뷰 속에서, 숨어있는 보물 우암동 소막마을과, 이제 곧 재개발로 인해 사라질 도시의 섬, 매축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모두 아방가르드의 중심 속에 있으며 새로운 부산 예술의 전위를 꿈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감의 벚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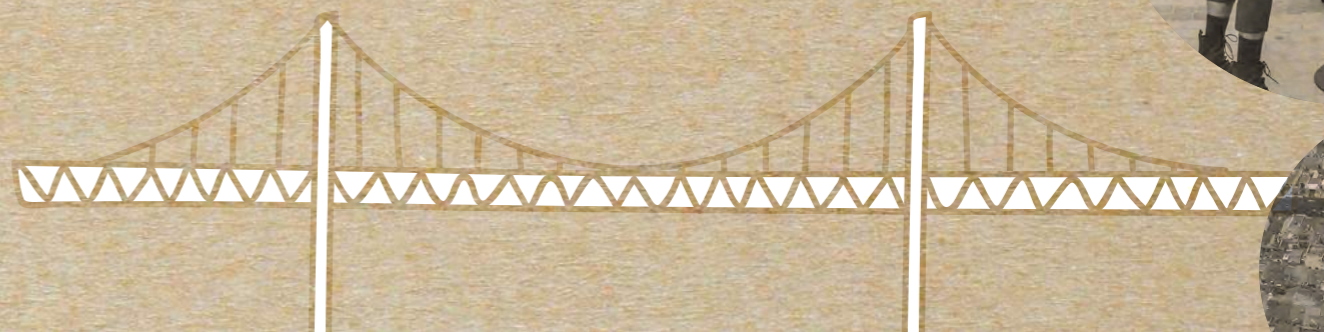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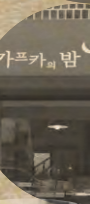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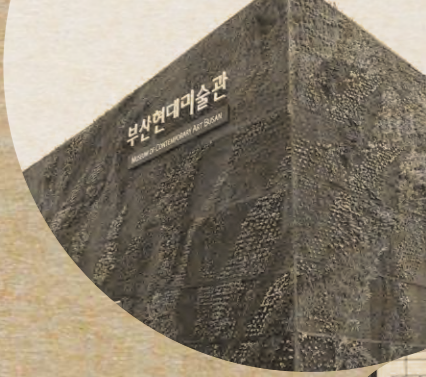
008 부산현대미술관, 동시대 미술과 부산 문화예술의 새로운 이정표
- 박정구 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014 부산발(發) 남북 문화교류 진단, 안으로는 성취감! 밖으로는 평화
- 조봉권 국제신문 문화부장

민선 7기 부산문화정책에 바란다
- 김혜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자유문화기획자

018

022 음악과 함께한 인생 국내 최고령 피아니스트 제갈삼
- 박선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부산현대미술관, 동시대 미술과 부산 문화예술의 새로운 이정표

글 박정구 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사진제공 부산현대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벽면 안뜰 페인트관, 안뜰

부산현대미술관이 지난 6월 16일 문을 열었다. 부산의 두 번째 시립미술관이다. 부산시립미술관이 개관한 해가 1998년이니 꼭 20년 만의 일이다. 당시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미술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때로, 이후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와 규모가 큰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미술관을 가지게 되었다.

서부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지

흔히 미술관과 박물관 수를 인구에 대비하면서 지역이나 국가 문화예술 발전의 척도로 삼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부산의 미술관은 아직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팽창, 발전하고 있는 서부산 지역을 놓고 볼 때 부산현대미술관의 개관은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미술관은 박물관의 하나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술 전문 박물관이다. 인간의 미적 활동의 결과인 인공물을 수집, 보존, 연구, 조사하고 전시, 교육하는 곳이다. 모든 박물관이 그러하듯 미술관 역시 그 대상물인 미술품이 전제가 된다. 수집한 미술품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기능 면에서나 건물이 아니라 미술품이 우선시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미술품을 모으는 것은 여러 모로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다양한 문화적 요구로 인해 요사는 미술관, 특히 공립미술관은 먼저 건물부터 짓고 나중에 작품을 수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동시대 미술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은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에 자리하고 있다. 을숙도라 하면 겨울철새 도래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부산과 인근 주민들에게는 특유의 풍광으로 사랑을 받아온 명소이다. 이러한 입지는 여타 미술관에서는 찾을 수 없는 환경상의 이점이자 미술관이 그 성격과 지향을 설정하고 발전해가는 데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미술관은 약 3만㎡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전시장, 수장고, 어린이예술도서관, 교육실,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현대미술관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미술관은 동시대 미술(contemporary art)을 대상으로 한다. '동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하므로 '동시대 미술'은 우리 시대의 미술이다. 부산현대미술관에서는 당대에 벌어지고 있는 미술의 양상과 흐름을 담은 전시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범주와 더불어 부산현대미술관은 '자연·뉴미디어·인간'이라는 세 가지의 가치를 미술관 철학의 핵심에 두고 있다. 먼저 자연과 환경은 인간이 생명체의 하나로서 삶을 유지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문명을 존속하고 발전해가는 근본적인 전제이다. 따라서 인간의 미적 활동 또한 오늘날 위기를 맞고 있는 생명의 기반에 관해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시대를 규정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 테크놀로지는 주지하는 것처럼 미술을 포함한 예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현대미술은 그러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형식과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 그에 맞추어 미술관도 새로운 매체의 적용을 통해 '사회의 거울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수행하고 있는 현대미술의 행보를 주목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개관전

인간의 지적이며 예술적 활동의 산물인 미술은 사실 어느 한 시절도 그 주체인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현대미술관이 인간을 그 활동의 핵심에 둔 까닭은 오늘날 사회가 노정하고 있는 인간소외와 더불어 증대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전망에 대해 미술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함으로써 스스로의 역할을 재삼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로부터 우리나라와 세계에 이르는, 그리고 미술의 내적 가치문제로부터 사회와 문화 전반에 이르는 관심사들을 관람객을 포함한 시민들과 함께 생각하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6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어진 개관전은 그러한 가치와 그에 대한 고민 속에서 준비되었다. 외관과 구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던 미술관 건물을 주변의 생태와 환경에 녹아들도록 한 패트릭 블랑의 '수직정원', 미술이 제시하는 새로운 미적 공간을 체험하게 하면서 카페로 사용되고 있는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작품, 역사, 문명, 문화를 비롯한 인간이 만들어온 자취와 그에 대한 반추·전망을 담은 '아티스트 프로젝트', 인간의 미적 감성과 수용에 관한 오랜 물음과 문제를 오늘날의 화두인 테크놀로지의 의미에 대한 반문처럼 제시한 '사운드 미니멀리즘, 지성과 진보에 대한 믿음과 그에 편승한 오만과 이기, 그리고 편견의 치부를 드러냈던 지난 세기 이래의 사건과 가치의 표류를 보여주는 가운데 그것을 딛고 맞아야 할 진정한 미래를 고민하고자 한 '미래를 걷는 사람들'. 이들 전시는 앞서 언급한 '자연·뉴미디어·인간'이라는 미술관의 지향과 철학을 담고자 한 첫 시도였다.



관람객과 소통하는 미술관이기 위해

부산현대미술관은 그 입지와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적지 않은 우려의 눈길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을 연 이후 그것은 그야말로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하루하루 시간을 더해가면서 확신하게 되었다. 개관 첫 주말 하루 만 명 안팎이었던 관람객은 이어진 평일에도 수천에 이르렀으며, 아침에 문을 열기 전부터 모여드는 외국의 유명 미술관에서나 볼 수 있는 뜻밖의 풍경마저 목도할 수 있었다. 미술관은 그렇듯 예기치 못한 현상을 그저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예상 밖의 상황이 지닌 여러 의미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응할 준비를 하면서도 애초에 문을 열고 다가가 함께하고자 했던 일들을 더욱욱 삼가 다듬으려 한다. 개관전 하나에 모든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는 것이기에 내년 봄부터 다시 이어질 전시와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미술인 그리고 관람객과 고민하고 소통하는 걸음을 이어갈 것이다.

부산발(發) 남북 문화교류 진단

안으로는 성취감! 밖으로는 평화!

글 조봉권 국제신문 문화부장
사진제공 국제신문

지난 6월 27일 부산문화재단은 '2018년도 부산 문화로 통(通) 포럼'을 '부산발(發) 남북 문화교류 진단 - 가능성과 방향에 대하여'로 열었다. 나는 이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친 직후에는 이 분야 '강호의 고수들'을 만난 기쁨이 더 컸다. 발제와 토론을 맡은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이용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 박은영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 사무관 등이 그분들이다. 박영정 실장께서는 며칠 뒤 곧장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했다.



남북 화해를 위한 문화예술의 중요성

미래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색하는 자리로서 이 포럼은 일차고 진지했다. 포럼 직후 '이제 부산문화재단이 꾸준히 이 분야 일을 선도하고 추진해주기만 하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조금 느긋한 기분이었다. 그게 착각이었다. 느긋할 틈이 없었다. 부산 문화로 통(通) 포럼 직후인 지난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국회의원이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문화 세미나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문화교류의 과제와 전망'을 연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 내용을 살폈더니 이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문화정책학회가 주관해 박영정 실장(화해, 평화 시기 남북 문화교류 발전 방안),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 교수(남북 문화예술교류 성과 분석 및 향후 방향), 신준영 남북한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남북 문화유산 공동 발굴 현황과 협력 과제),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 지평) 발제. '부산문화재단이 한발 빨랐군' 하는 감상은 잠시였고, 이 주제가 관심사가 맞는 맞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왔다. 상식과 경험 차원에서 생각해봐도 남북의 화해와 평화 추구 분위기에서 교류의 초기 단계와 '아이스 브레이킹', 상호 이해를 위해 문화예술은 중요하다.

부산에서도 잇달아 소식이 들려오고 아이디어가 잇따른다. 부산시교육청이 통일 교육 확대를 위해 북한 항구도시 원산과 학생·교사 교류를 모색 중이라는 소식은 5월께 들었는데, 지난 7월 13일 부산시교육청은 아예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북한 원산교육청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국 통일이 가져다주는 학술의 발전

역사학자인 김기섭 전 부산대 총장(사학과 교수)은 현재 한국중세사학회장이자이다. 그를 지난 3월 만났을 때 “올해가 고려 건국 1100주년이어서 한국중세사학회가 중심이 되어 많은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남북 학계가 힘을 모아 고려시대 유적인 북한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을 재개하는 일부터 학술적으로 할 일이 많다”고 했다.

한국의 해양인문학 개척에 크게 이바지한 이름난 학자인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는 올해 7월 국립해양박물관장으로 취임해 부산 생활을 시작했다. 해양문화에 관한 책을 50권 넘게 내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깊이 연구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평화와 희망의 뱃길 사절단’에 나도 참여했다. 부산 시민과 문화예술인 등 500여 명이 함께 배를 타고 일본 후쿠오카, 중국 상하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하며 문화사업을 했다. 부산에는 조선통신사 기념사업을 비롯해 이렇게 뱃길로 교류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제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 향로를 북한 원산 앞바다로 잡는 것은 어떤가?”

나는 무릎을 쳤다. ‘안 될 게 없지 않은가? 발상의 전환이 바로 이런 것인가?’ 바로 직전에 부산에서 활동하는 고음악 권위자이자 고음악 평론가 박창호 씨와 만난 자리에서 그가 “선친의 고향이 북한 원산이다. 칠순을 바라보는 내가 아버지 고향 원산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 설렌다”고 한 것을 들은 터라 더 설레었다.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한 예술의 발전

꼭 기억해둘 만한 사례가 있다. 위에 언급한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 ‘평화와 희망의 뱃길 사절단’ 사업이다. 이때 부산 예술문화인이 많이 참여했다. 이때의 교류 체험이 부산 문화계에 알게 모르게 좋은 영향을 진하게 줬다. 다양한 장르 예술문화인이 배 안에서 처음 만나 ‘예술친구’가 되어 그 뒤로도 함께 작업하고 토론하면서 부산 문화 지평을 넓혔다. 부산의 중진 춤 예술인 하연화 씨를 인터뷰할 때 그는 “나의 춤 세계가 넓어진 큰 계기가 평화와 희망의 뱃길 사절단 참가 체험이다. 그 뒤로 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을 만나 더 많은 장소에서 더 열심히 춤췄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전화도 받았다. 부산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정책활동가이자 문화기획자였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올해 하반기에 부산과 여러 지역 문화활동가와 함께 남과 북의 문화교류를 논의하는 행사를 하려고 기획하고 있다. 부산에 남북 문화교류에 관해 전망하고 조언해줄 전문가를 알고 있는가? 강사로 모시고 싶어 여쭙는 것이다.” 생각해봤다. 그런데 안 떠오른다. 북한 전문가는 ‘문화’를, ‘문화’를 아는 이는 북한을 모른다.

이런 일은 있었다. 2008년이였다. 부산민미협(당시 회장 배인석 화가)이 롯데갤러리(당시는 롯데화랑) 부산본점과 공동으로 ‘부산에서 보는 겸재의 박연’ 전시회를 그해 8월 15일부터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한 스케치 여행으로 6월 13~14일, 당시 열려 있던 북한 개성을 다녀왔다. 부산민미협 회원 작가 26명이 개성을 관광하고, 체험과 느낌을 바탕으로 박연폭포를 재해석하고 개성 이미지를 그려 전시했다.

나는 이 개성 스케치 여행을 동행 취재했다. 당시 북측 ‘문학철 안내원’이 내게 “아니, 왜 여태 노총각으로 사느냐? 이해가 안 된다. 기자 양반은 우리 북측에 오셔서 공화국의 ‘공격 정신’을 좀 배워 가면 어떻겠느냐”고 걱정해 준 일을 또렷이 기억한다. 무엇보다 그때 여행을 함께했던 미술 작가들과 친해졌고, 그들의 존재는 내가 미술과 예술이 사회에서 할 일을 거듭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부산 문화예술계에 필요한 ‘성취의 기억’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1) 이렇듯 남북 문화교류에 많은 사람이 관심이 높다. 2) 아이디어와 방안은 모색하면 나오며, 일단 나오면 눈덩이처럼 조금씩 커진다. 3) 살펴보면,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자문을 구할 사람은 있다. 4) 좋은 문화교류의 효과는 깊고 오래 간다.

자, 여기까지 읽으신 독자 가운데 ‘그렇다면 너는 왜 정작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안을 제시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실 분이 있겠다. 아쉽게도, 이런 지적에는 별달리 답을 드리기 어렵다. 아직 초기 단계 또는 발상 단계이므로 세밀한 방안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또한 바로 이 단계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체 너는 왜 그토록 남북 문화교류에서 부산이 할 일을 앞서서 찾자고 주장하는 것이냐. 굳이 부산이나?’라는 물음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먼저 이렇게 답하고 싶다. “기획과 성취의 체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할 것이다!”

부산 예술문화계가 자꾸 힘이 빠진다는 주장과 분석을 듣게 된다. 부산 예술문화 자체의 실수나 실패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구조에 있다. 이 시대에 예술문화에 관심 없거나 이를 잘하고 싶지 않은 지역공동체가 있겠는가?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이 너무 강해져 다른 지역 역량과 사람을 빨아들이는 불가항력의 구조가 이를 자꾸 가로막는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의, 부산의 예술문화계가 ‘성취의 기억’을 자꾸 잃어간다. 이것이 정작 더 큰 문제다. 개인이나 집단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스스로 힘으로 기획하고, 시도하고, 벽에 부딪히고, 한계를 절감하고, 연대해가며 그 한계를 넘고, 그렇게 어떤 성취에 이르렀을 때 성장한다. 부산 예술문화계 또한 마찬가지다.

남북 화해와 평화 분위기가 더 고조되면, 문화예술을 앞세운 교류가 활성화될 것임은 명백하다. 필연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주도가 되어 평양과 문화교류를 주도할 것이다. 뉘 놓고 막연히 있다가는, 도착할 곳은 두 군데다. 1) 열 패감에 또 빠진다. 2) 서울에서 불러줘야만 가서 평양 공연 한 번 하고 돌아오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원하는 것이 이것인가?

민선 7기 부산문화정책에 바란다

글 김혜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자유문화기획자



최근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전면재검토 방침을 전했다. 문현혁신도시 내 건립 예정인 뮤지컬전용극장(2,000석 규모)과 부산시민공원 내에 지어지는 부산국제아트센터(2,000석 규모)와의 공연장 중복 문제가 가장 주요한 이유였다.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간 오페라하우스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역의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분분한 사안이었다. 필자는 부산에 과연 오페라와 관련한 자원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2,000석 규모의 객석을 채울 관객은 있으며, 그 정도의 관객을 마주하고 공연을 올릴 수 있는 오페라단이 부산에 몇이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시간을 좀 더 두어 오페라를 일상에서 만나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페라단도 좀 더 많이 생기는 상황들을 만들고 난 이후에, 부산에 오페라하우스가 꼭 필요하겠다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오페라하우스 준비과정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지난 2008년 롯데가 1천억 원을 내겠다고 한 순간에 시작한 이 논의는 극장의 내용이나 시민들의 호오보다는 예산으로부터 출발한 프로젝트임이 명백하다. 사업의 논의가 시작된 이후 부산시가 오페라와 관련하여 한 사업은 부산문화회관이 2013년부터 진행한 오페라교육이 전부였다. 이러한 상황이면 우리 부산에 오페라하우스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지 못했다는 의미 아닐까.

부산시민의 문화향유에 필요한 지역 예술인

지난 6월 있었던 지방선거로 부산은 큰 변화를 겪었다. 지난 시간 동안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던 공식을 깨고 새로운 부산의 지방정부를 세웠다. 대단한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이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는 경험을 했고, 이번에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힘을 새삼 실감하게 만들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는 부산시장으로 오거돈을 선택했다. 오랜 관료 생활을 한 그는 과연 부산의 문화정책에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을까. 앞으로 가장 관심을 두고 지켜보아야 하는 대목이다. 350만의 인구에 약 11조의 예산을 가진 부산시는 전체 예산의 약 3.7%를 문화관광에 지출하고 있다(2018년 기준). 민선 7기의 도시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고 그 아래 목표 5가지 중 하나는 '문화가 흐르는 글로벌 품격 도시'이다.

문화예술의 자율성, 다양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문화도시로 재창조하고,
시민 누구나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며 행복을 누리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산시는 '문화로 앞서가는 도시, 문화가 흐르는 글로벌 품격도시' 아래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문화가 생활이 되는 도시 부산, 둘째, 지속가능한 영화·관광 성장 기반 구축, 셋째, 시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도시 부산 조성이 그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정상화와 관광을 위한 과제들이 제시되었고, 세 번째 스포츠에서는 스포츠 인프라 등의 제안이 있었다.

세 가지 과제 모두 지역의 예술인들과 관련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 물론 지역 예술인의 규모가 아주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그러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문화도시를 표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문화향유라면 그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지역의 예술인이라는 점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다.

민선 7기 부산의 문화정책 돋보기

문화예술과 관련한 첫 번째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자.

1	2	3
시민참여 문화정책 추진	문화 기반시설 확충	문화유산 보존·계승
문화소비자인 시민의 문화정책 참여를 확대	시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부산만의 역사·문화 자산 발굴로 문화정체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상향식 부산 문화 중장기 비전 수립 - 문화도시 지정 신청, (가칭)부산문화행정혁신조례 제정 - 시민 체감형 생활문화 사업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생활문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아트센터 건립 본격화 - 부산도서관 개관 준비 및 국회도서관 부산관 착공 -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 조성 - 명지지구 문화복합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 정부 가야문화 연구복원 국정과제에 대응, 지역 가야문화 영역 추진 - 초량왜관 역사관 건립 및 피란생활 역사문화 마을 조성

시민들의 문화정책 참여와 문화향유를 위한 인프라 확충 그리고 부산만의 문화특성화를 위한 준비 작업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시민들과 소통하여 문화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혹시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반영되지 않는 목소리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 또한 향유자로서의 경험만으로 부산의 문화에 대한 비전을 제안하는 것이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일까.

문화도시로 지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생활문화가 자리 잡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여유가 있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인데, 과연 부산의 시민들은 생활에서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일까. 부산에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과연 필요할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서관은 과연 적절한 위치에 들어설까. 부산의 역사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자리를 잡는다고 그것이 부산의 정체성이 되는 것일까. 이렇게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자료를 보아도 의문은 이렇게나 많다.



지역경제에 비례하는 지역예술 수준

부산이 문화도시가 되려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먼저 문화향유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산시민들의 생활이다. 문화라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유 있을 때 즐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모든 소비에서 가장 후순위를 차지하는 것이고, 절약을 해야 할 때 1순위로 여겨지는 것도 이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시민들이 문화향유를 적극적으로, 생활문화로 할 수 있으려면 시민들의 생활이 풍족해야 한다. 그것은 비단 경제의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심리적인 것을 포함하는 분위기를 일컫는 것이다. 또한 부산시민들에게는 부산의 지역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주 많은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미디어는 더욱 그러하다. 미디어가 주목하는 예술(인)의 경우 전국에서의 집중이 가능하지만, 미디어에서 비껴나 있으면 존재마저도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지역예술의 존재에 대한 홍보는 강렬하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역의 예술인이다. 문화도시라 함은 지역에서 문화를 즐기는 것이 지속적이고 일상적이어야 함을 일컫는다. 이에 기반이 되는 것은 지역에서 살며 생활하는 지역 예술인들의 작업인 것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예술인들의 삶은 팍팍하다. 그렇기에 지역의 예술이, 그들의 작품이 공공재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문화산업을 바라보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부산시민들의, 부산의 문화행정이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지지를 기반으로 지원정책이 만들어진다면 부산의 지역예술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부산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와 관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70% 이상이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그 서비스업도 음식, 숙박 등의 자영업자들이 많은 경우 관광은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문화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는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지역의 것으로 남는 것이지, 단기간의 행사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지역의 관광 콘텐츠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문화도시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음악과 함께한 인생

국내 최고령 피아니스트 제갈삼

글 곽선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부산에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라면 '제갈삼'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제갈삼 선생님은 1925년 마산에서 태어나 음악 교사를 하시며 당대 청마 유치환 선생님, 윤이상 선생님, 이상근 선생님과 함께 교육자이자 음악가로서 활동했던 우리나라의 1세대 예술가다. 고령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꾸준히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내년이면 미국의 루빈슈타인과 함께 기네스북에 최고령 피아니스트로 등극하게 된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으며 영광스럽게도 제갈삼 선생님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



그리고 두 시간 정도 피아노를 치지요. 그게 내 일상이 되어버렸지요. 음악이 좋아서 그렇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피아노를 칩니다.

지독하게 더운 어느 여름날,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뵈 수 있었다. 선생님이 초대해주신 연습실 겸 서재는 오래된 음악 서적들과 CD, LP로 가득했고, 건반색이 바랜 아주 오래된 일본의 디아파송 그랜드 피아노와 독일의 슈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있었다. 들어서자마자 선생님의 음악 족적이 느껴지는 장소로 인터뷰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다. 선생님은 올해 93세의 고령이시지만 너무나도 건강하고 총명한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시며 인터뷰에 응하셨다.

Q. 선생님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나를 음악과 연관 지어 소개해보자면 대구 사범학교로 진학하면서 피아노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바이올린을 공부하는 선배가 나더러 피아노를 하면 좋겠다 하면서 권하더라고요. 아마 내 피에도 음악적인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형님이 어디서 배웠는지 바이올린을 쳤고 누님도 사람들 앞에서 오르간을 쳤어요. 어릴 때 그 모습이 너무 멋지고 좋았지요. 그래서 나도 학교에 있는 오르간을 종종 치고 그랬지. 그래서 그랬는지 그 선배의 제안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대구 사범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우게 됐어요. 매년 연주회를 열 어줄 정도로 꽤나 전문적으로 음악 교육을 시켜줬어요. 졸업하고 나서 음악교사로서 지냈는데 그 시절에 청마 유치환 선생님을 교장으로 모실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산에서 친하게 지냈던 이상근 선생이 당시 교육대학의 교수였는데 피아노 교수가 필요하니까 오지 않겠나 해서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에서 피아노 교수를 하게 되었고,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피아노 교수까지 오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 평생을 음악과 함께, 이제는 나를 설명할 때 떼려야 뗄 수 없는 음악과 하나가 됐습니다.

Q. 내년이면 94세 최고령 피아니스트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신다 들었습니다. 기분 어떠신가요?

에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아직 모르는 거지요. 되어봐야 알지. 그래도 내가 내년에 오르게 된다면 그것 또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게 오롯이 나 혼자서 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6.25 때 마산중학교에서 교사로 있었는데 부산에 책을 사러 나왔다가 군대에 끌려갈 뻔했어. 하필 또 그날 교원신분증을 안 가져온 터라 '이제 죽는구나'라고 단념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선생님, 여기 어떤 일입니까?" 하는 소리가 들렸지. 선생님이라는 소리에 경찰관이 나를 돌려보내줬어요. 그 제자가 아니었으면 그 때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죽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여태 살았어요.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았는데 기네스북에 오른다면야 너무 좋지요. 우리나라로서도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Q. 피아노를 친다는 게 사실 굉장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한 일인데, 지금 연세에도 그렇게 피아노를 치는 것 외에 연주회까지 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건강은 타고난 편인 것 같아요. 선조들도 다 장수하셨고, 먹는 것도 특별히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어요. 그렇지만 정신건강은 내가 지켜야겠다 싶어서 매일 매일 피아노를 칩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손가락을 굴리는 것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거든요. 또 녹차라떼를 좋아해서 매일 두유에 녹차라떼를 직접 만들어다가 거기에 천마차라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다 넣어서 녹차라떼를 만들어 마십니다. 그럼 한 오후 3시 반쯤 되어요. 그리고 두 시간 정도 피아노를 치지요. 그게 내 일상이 되어버렸지요. 음악이 좋아서 그렇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피아노를 칩니다.

Q. 선생님의 연주회에는 항상 베토벤 음악이 연주됩니다. 특별히 베토벤을 애정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많은 천재들 중에서도 특히 베토벤을 숭배한다고 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모차르트도 천재이고 음악이 아가지기하고 아름답지요. 쇼팽의 음악도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베토벤은 그들과 다르게 가슴을 울려주는 무언가가 있어요. 나는 그것이 '사상성'이라고 생각해요. 베토벤의 생애를 보면 참 어렵게 살았어요. 어려서는 가난했고 나중에 커서는 조카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고 30대 후반에는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베토벤은 자살을 생각했어요. 이걸 몰랐을 거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니까. 오스트리아에 하이리겐슈타트이라는 곳의 한 여관에서 생을 마감하려 결심하고 보니 그도 많은 생각이 오갔겠지요. 그때 쓴 유서를 보면 '인간은 태어날 적에 무언가 이 세상에 이바지할 일거리를 타고난 것이다. 그럼 내 할 일은 무엇이나? 음악이다. 그럼 내가 할 음악을 다하였는가? 아직 아니다. 그럼 나는 죽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베토벤은 다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후 나타난 그의 음악이 아주 걸작들이예요. 프랑스에 로망 롤랑이라는 베토벤을 연구하는 학자는 그 시기를 '결작의 숲'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엄청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런 작품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요. 베토벤의 <장엄 미사(Missa solemnis)>라는 큰 곡이 있는데 거기에 독일어로 'von Herzen zu Herzen'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흔히 '가슴에서 가슴으로'라고 번역되지만, 나는 가슴보다는 '마음' 또는 '정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베토벤은 음악을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소리에 의한 언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나는 참 맞다 싶어요. 그러니 베토벤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한 피아노를 연주할 때 때려야 할 수 없는 음악과 하나가 됩니다. 이제는 나를 살릴 때 때려야 할 수 없는 음악과 하나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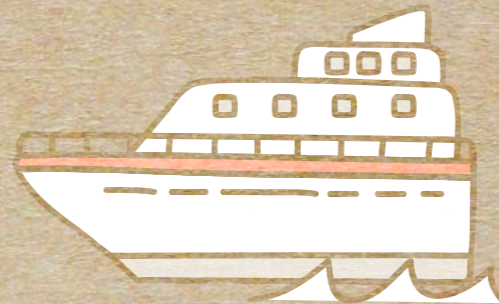
Q. 음악교육자이자 피아니스트, 작곡가, 공연기획자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음악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혹시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는 아쉽게도 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저 지금처럼 유지만 해도 더 바랄 것이 없어요. 큰 욕심은 없어요. 건강을 유지해서 계속해서 연주를 하고 강의도 하고 싶어요. 경남여고에 있을 시절 내 반주에 세계 명곡들을 노래하던 제자들과 부산 대학교에서 서양음악사, 음악미학, 반주법 같은 걸 가르칠 때 그 빛나는 눈동자들을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제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길러주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젊은 예술가들에게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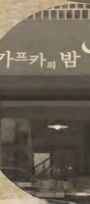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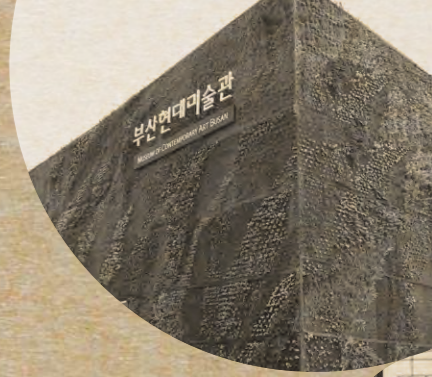
젊은 시기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나도 20대에 연습한 곡들은 지금도 연주할 수 있어요. 근데 30대에 연습한 건 잘 안 되더라고. 기억이 안나요. 젊을 때 열심히 해둬야 해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재미있으니까 하면 금방 질려버려요. 물론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흥미만 찾는 모습이 난 좀 아쉬워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베토벤이 했던 말처럼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가'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음악에 임했으면 싶어요. 그래야 더 좋은 음악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하늘은 스스로를 지키려 노력하는 이를 돕는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매일같이 피아노 치는 것이 건강상의 이유로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음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같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세요. 나 역시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음악가로.

공감 Review



030 부산국제사진제 그리고 포토 갤러리 051의 '부산은 사진이다'
- 김홍희 사진작가

034 거리로 나온 예술,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
- OOO 문화기획자



부산국제사진제 그리고 포토 갤러리 051의 '부산은 사진이다'

글 김홍희 사진작가

사진은 기억을 지배한다. 인간의 기억은 생존과 관련되면 대체로 편집되기 일쑤이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사진전을 한다는 것은—그것이 개인전이건 단체전이건 상관없이—현재의 기억을 편집하고 고착시켜두는 역할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개인전이면 개인의 생존, 단체전이면 사회적 생존을 위한 기억의 편집과 편집된 기억의 고착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또 그 개인의 생존과 사회의 생존 조건의 변화에 따라 또 다시 편집된다.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 사진의 기록조차 항상 일률적으로 해석되거나 기억의 공통분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의 사진가들은 이 시대 무엇을 찍는가

요즘 부산의 사진계가 뜨겁다. '부산국제사진제'라고 하는 국제행사가 민간 주도로, 그것도 아마추어들의 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기 좋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작년 행사가 1회이고 올해가 2회. 작년보다 규모나 참여자 면에서 월등히 나아진 모습으로 현재 전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시도가 꽤 오래 전에 있었다. 다른 점이라면 국제전이 아니라는 것뿐. 1999년 당시 부산 사진의 상황은 지금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춘추전국시대처럼 각자의 사진세계가 부산이라는 좁은 지역에 난립하고 있었다. 당시 부산 각 대학의 사진과에 유입된 젊은 교수들과 신문사의 폐업으로 갈 길을 잃은 사진기자,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막 들어온 사진 유학 1세대들의 공통 관심사는 '부산의 사진가들은 이 시대에 무엇을 찍는가'였다.

그들의 면면은 이랬다. 당시 부산예술문화대학 광고창작과 강현덕 교수, 부산 사진의 자존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김동준 선생,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를 구가하고 있는 사진가 김원홍 선생, 신문사 폐간으로 하루아침에 밥줄이 끊긴 부산매일신문의 사진부 데스크 문진우 차장, 동주대학 광고사진과 박희진 교수, 사진으로 예술의 범주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서상구 선생, 중앙일보 사진부 기자 출신의 경성대 사진학과 오승환 교수, 당시 성심외국어대학 사진디자인과의 황철환 교수, 그리고 일본에서 귀국해 상업스튜디오로 연명하다 다시 본업인 전업작가로 전향한 김홍희 등 9명이었다. 이들의 대다수는 당시 김홍희와 문진우가 운영하던 '포토 갤러리 051'의 운영위원이기도 했다.

포토 갤러리 051이 만들어지기까지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포토 갤러리 051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다.

당시 문진우는 부산매일신문의 현직 기자로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고, 김홍희는 프리랜서로 다양한 촬영 주문을 받아 현장에서 사진을 소화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던 입장이었다. 때는 총선 때라 현직 기자인 문진우는 취재촬영으로 현장을 누볐고, 김홍희는 촬영을 의뢰 받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촬영 때문에 현장을 드나들던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였다. 그리고 둘은 동갑이었다.

이 둘은 가끔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의 '찰리스'에서 만나 부산 사진의 현황과 미래상을 이야기하면서 의기투합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사람은 현직 기자였고 또 한 사람은 전업 작가였다. 두 사람이 하나

의 목표를 두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을 공유해 같은 이념을 위해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은 당시의 여건으로서의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산매일신문이 폐간되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달맞이언덕에 '포토 갤러리 051'이라는 등지를 틀게 되었다. 졸지에 직장을 잃은 문진우는 경제력 여력이 없어 김홍희의 펀드로 일단 포토 갤러리 051 자리를 임대했다. 이 장소의 인테리어 비용은 지금은 '캐논 플라자'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카메라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현대 카메라'라는 가게명으로 사업을 하던 배춘섭 사장이 신문에 현찰 1천만 원을 싸워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꺼이 내 주었다. 부산 사진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헌신적인 마음을 써 준 사업가가 있어서 포토 갤러리 051은 가능했다.

직함을 나눌 때는 관장, 부관장이라는 상하 관계가 아닌 김홍희는 대표, 문진우는 관장을 취임으로써 상호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김홍희는 기획을, 문진우는 기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발로 뛰는 역할을 분담했다.

부산 사진의 현재와 나아갈 길을 찾다

여기에 모인 사진과 대학교수들과 작가들이 뭉쳐 포토 갤러리 051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이들이 모여 '부산은 사진이다'라고 하는 기획전을 준비했다. 우선 부산의 사진가 100명의 참여를 독려해 부산 사진의 현주소를 둘러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이런 점에서는 '부산은 사진이다'와 '부산국제사진제'의 기본 취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재 위치를 알아야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부산은 사진이다' 전시는 3회를 목표로 했다. 주제는 천지인으로 첫 회는 하늘을 대신해 '바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이라는 '터', 세 번째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고 이 둘을 관장하기도 하는 인간, 즉 '사람'을 주제로 전시를 하기로 했지만 아쉽게도 2회에서 끝나고 말았다.

무엇이나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그 시작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 시작도 사람의 일이고 연속성도 사람의 일이다. 일을 하면 스타가 탄생하게 되고 스타가 탄생하면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나오게 된다. 우리 모두는 스타를 꿈꾸지만 현실은 우리 모두를 스타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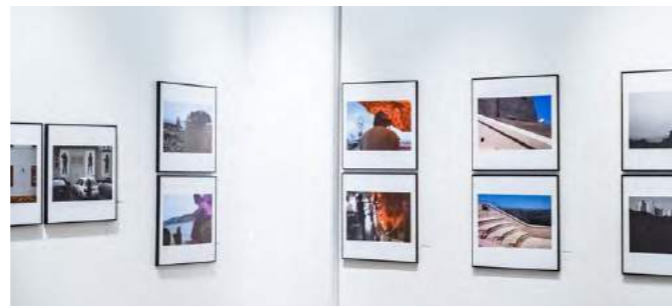
내 기억이 맞다면, '부산은 사진이다'가 2회에서 주춧거리고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것은 두 번의 전시로 스타들이 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 반열에 들지 못한 사람들의 열정은 급격히 식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 함께 이끌어가는 부산 사진의 미래

부산국제사진제의 불가사의한 성공은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현 부산의 사진가들을 응집시켰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군웅할거 하는 이 시대 부산 사진의 원점을 돌아보고 힘을 응집해서 외국으로 나아갈 길을 새롭게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부산국제사진제를 운영하는 분들의 노고와 부산 사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파벌이나 알파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 동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 시대의 자세일 것이다. 그리고 부산국제사진제의 운영위원들은 자신의 역량만을 믿지 말고 좀 더 확장해서 꼭 부산이 아니라도 국제적인 행사의 안목이 있는 인재들의 자문을 흔쾌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부산국제사진제가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부산국제사진제가 운영위원들에게는 커다란 자부심이 될 것이요, 부산 사진의 미래를 위해서는 엄청난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슬슬 자신의 성공 경험을 넘어 밖으로부터 최고의 인재를 불러들여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적인 행사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본다. 또한 스타를 키우고 스타 탄생으로 인한 제2의 '부산은 사진이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세계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부산국제사진제 운영위원들의 면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제는 실천만 하면 된다. 다시 한 번 부산국제사진제 2회의 성공을 본다.



거리로 나온 예술,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

글 000 문화기획자

※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해 집필자는 익명처리합니다.





예술 공간으로서 거리는 매력적이다. 많은 예술가들이 극장이 가진 제한에서 벗어나고자 일상의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감성을 새기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에서도 수년 전부터 공공예술, 그중에서도 거리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 공모사업을 통해 도시공간에서 예술과 관객을 만나게 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중 올해 ‘대규모 축제형’ 사업으로 선정된 ‘2018 부산국제거리공연예술제(김남진피지컬시어터 주최, 6월 1일~6월 3일, 부산광안리해수욕장 일대)’를 보고 느낀 점을 통해 부산의 거리예술에 대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축제 공간의 특수성을 먼저 고려

거리예술에서 공간의 특수성만을 의지하는 것이 좋은 모델이지는 않지만 축제라면 ‘왜 그곳인지’라는 이유는 큰 정체성을 가진다. 광안리는 부산을 대표하는 자연인 바다와 모래해변이 있고, 거대자본과 권력에 의해 생겨난 경관이 주변 곳곳을 메우고 있는 중이다. 이런 곳에는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관객 친화적 관점에서 보면 거리예술을 하기 쉬운 곳이다.

하지만 보편적 창작물을 늘어놓기에는 다소 어려운 공간일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 특성상 여러 상권이 뒤섞여 있고 각종 소음과 차량통행으로 공연에 집중할 만한 장소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예술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거리예술의 정신을 지닌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차량이 통제되지 않는 거리에서 좁은 인도 위 관객의 동선은 불안했다. 예술가는 그 공간에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 잦은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의 변경은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주최 측이 충분히 숙지하고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광안리해수욕장이라는 장소의 특성과 주제를 고려한 작품이 부족했고, 지역 시민들의 경험이 드러나는 공연이 창작되지 않았다는 것도 큰 아쉬움이었다. 새로운 볼거리 제공도 좋지만 왜 극장에서 밖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왜 이곳에서의 축제인지에 대해 우선 생각해봤으면 한다.

내실에 초점을 둔 운영의 필요성

인력 구성보다는 프로그램 끼워 넣기에만 집중할 것 같은 운영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총 다섯 군데로 나누어진 공연 구역에서는 홍보와 안내가 부족했고, 뜨거운 햇빛을 다 받으며 준비하는 예술가와 거리공연을 기다리는 시민을 위한 도움의 손길은 잘 보이지 않았다. 여러 장소, 여러 참가팀들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좀 무리한 진행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역 예술 지원 기금의 한계를 볼 때 대규모 축제형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도 하다. 각 지자체의 거리예술축제가 자리를 잡고 그곳을 중심으로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한 축제의 공연을 우리 지역에서도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도 인정한다. 거리예술은 그 자체로 수익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보니 축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거리예술이 가진 본연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가장 민주적인 예술이라는 한 축도 축제를 지원하는 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매년 되풀이되는 해외작품 축제 돌려막기를 부산에서 꼭 따라해야 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그것보다는 제대로 된 사무국, 기술팀의 구성으로 축제의 내실을 꾀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 프로그램의 규모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과 어울리고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중·소규모 공연을 유지해 시민 관객들과 소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했다. 단지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 수단인 아닌 지역의 의식이 표현되는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거리공연예술제가 될 때 지속적인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광안리는 부산을 대표하는 자연인 바다와 모래해변이 있고, 거대자본과 권력에 의해 생겨난 경관이 주변 곳곳을 메우고 있는 중이다. 이런 곳에는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관객 친화적 관점에서 보면 거리예술을 하기 쉬운 곳이다.

좋은 환경에서 안타깝게도 이번 축제는 한국거리예술의 유통망에 끼어들었을 뿐 대안예술이자 도시재생운동이기도 한 거리예술의 다양성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거리예술의 다양성과 개성 부재

축제를 통해 발전해온 타 지역의 거리예술에 비해 부산은 현대식 거리예술의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축제 전문가들은 부산의 기후조건과 부산항을 통한 물류의 이동 편의 등을 얘기하며 부산이 거리예술 하기 좋은 도시임을 강조하였다. 10~11월에도 거리예술을 할 수 있는 온화한 기후, 해외 초청팀의 거대한 구조물이나 장비를 들이기 좋은 항만물류의 중심지, 산·바다·강이 어우러진 거대 도시 등은 다른 도시의 축제 관계자가 보기엔 너무 탐나는 환경인 것이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안타깝게도 이번 축제는 한국거리예술의 유통망에 끼어들었을 뿐 대안예술이자 도시 재생운동이기도 한 거리예술의 다양성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물론 각 개별 공연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아름다운 노력이 깃든 작품들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축제가 남긴 것이 '7개국 25개 단체'의 수치적 성과 외에 무엇을 남겼는지 피드백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작품은 재공연된 것들이었고, 프로그램 선정에 이번 축제만의 색깔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업 선정 주최 측뿐만 아니라 부산문화재단 역시 대규모 축제형 사업의 선정과 지원에 뒤늦은 생존을 위한 유통구조에 민간단체를 밀어 넣은 것은 아닌지 파악하여 지역 거리예술 발전에 대한 계획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거리로 나온 예술이 반길 수 있도록

처음으로 치러진 거리공연예술제를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다른 지역의 축제와 비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실적을 남겨야 하는 기관의 입장과 예술가들의 창작은 늘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다. 특히 거리예술은 여러 가지 정의에 빠져 양쪽 모두를 시험에 들게 한다.

지금까지 제기한 장소성, 규모,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시선 또한 어느 한 관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축제의 장에서 빠져나와 다시 한 번 뒤돌아보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축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거리 예술 작품 개발 워크숍을 했다는 것이다. 지역 특성을 살린 거리공연 작품을 만들고, 전문가팀을 꾸릴 계획으로 14회간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그 결실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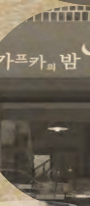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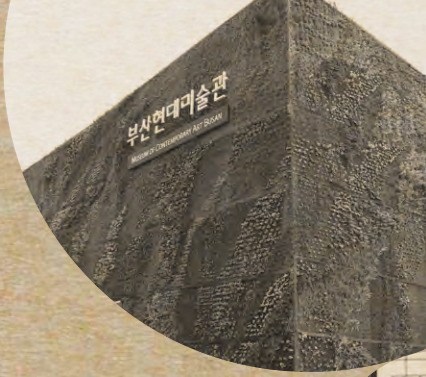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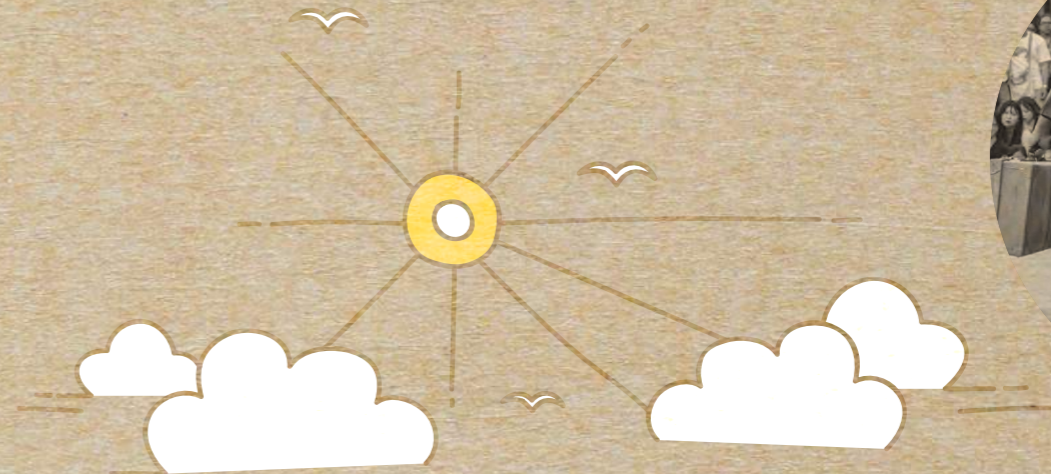
시대가 변화에 따라 거리와 관객의 문화는 변한다. 그리고 거리예술의 정의도 더욱 다양해져 가고 있다. 적당한 대안과 담론이 없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연 나열식 축제의 지속성을 얘기한다면 더 이상 거리로 나온 예술을 반갑게 맞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B- side



044 개성과 개성이 느슨한 연결고리를 갖는 곳
독립서점

- 이화숙 카프카의 밤 저녁지기, 독립출판물 <타버코밍아웃> 저자



BOOK



개성과 개성이 느슨한 연결고리를 갖는 곳

bookshop

독립서점

글 이화숙 카프카의 밤 저녁지기, 독립출판물 <타바코밍아웃> 저자



독립서점에서 발견하는 '문화다양성'

지난 6월, 서울국제도서전에 다녀왔다. 작년부터 동네서점, 지역출판사 기획전 등 구성이 획기적으로 바뀐 도서전에 큰 관심이 있었던 터였다. 사장님과 동행으로 출장을 갔는데 빼뺀한 살림이지만 꼭 이런 출장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식적으로 다니고 있다.

책과 관련한 새로운 담론과 기술을 따라 가보려고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 여러 컨퍼런스를 들었다. 전자출판 시장의 흐름, 독립출판 플랫폼 등 평소에 궁금했지만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 않던 주제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가닥이 잡혔다. 물론 도서전의 꽃인 출판사 부스들도 꼼꼼하게 돌아봤다.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인천 배다리 '나비날다' 책방을 향해 오래간만의 나들이를 이어갔다. 어느 정도 구경하고 나면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일정을 잡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만 하루, 꼬박 1박 2일을 이 책방에서 보내고서야 부산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 돌아와서 이번 나들이에서 구입한 책을 하나씩 정리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백 개의 부스가 있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보다 '나비날다' 책방에서 구입한 책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기억을 더듬어보니 새로 만나는 책, 지역의 특성을 살린 책, 취향저격인 책들이 많아서 한 권 한 권 들춰보다 결국 구입한 책도 많았던 것이다.

독립서점, 동네책방에 대해 정의하는 일이 늘 참 쉽지 않은데, 이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동네에 작은 책방, 독립서점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 온라인서점,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이 주도하는 도서시장에서 독립서점이 곳곳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책의 '발견성', 즉 개성 넘치는 '큐레이션' 덕분이다. 그러니까 독립서점은 문화다양성을 치열하게 실천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꿈이 자라는 공간, 책방 '카프카의 밤'

나는 현재 연산동에 있는 책방 '카프카의 밤'에서 저녁하기로 활동하고 있다. 작년 여름 <타바코밍아웃>이라는 독립

출판물을 냈다. 이 책은 단골서점인 '책방숲'에서 열린 워크숍을 통해서 제작했다. 입고를 위해 '카프카의 밤'을 방문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카프카'가 문학 전문 서점일 거라고 오해하고, 살짝 주눅이 들어 집에서 가까운데도 계속 방문을 미뤘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문학 이외에도 다양한 인문사회서적과 독립출판물이 있는 서점이었고 책 취향이 너무나도 맞아서 자주 들락거렸다.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추리서점' 일을 도왔는데 기획하는 일도 재미있고, 손님들과 책을 매개로 만나는 일도 너무 재미있어서 아예 책방에 눌러 앉게 되었다. '카프카의 밤'은 비교적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편이다. 일단 서점 안에서는 '카프카 독담회'를 기본으로 여러 독서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동네서점답게 주민들의 참여도 적지 않다. 이런 모임이 아니라면 만나기 쉽지 않은 다양한 연령과 이력의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통해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어떨 때는 참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기까지 하다.

이런 경험에 용기를 얻어 책방의 문턱을 낮추는 행사들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7월 마지막 금요일에 있었던 심야 책방에서는 무더위에 지친 손님들을 위해 수박화채를 준비하고 서점 앞에 탁족을 할 수 있게 미니풀을 가져다 놓았다. 소심하게 훑길 밖에서만 구경하던 손님들도 이날은 서점 안으로 여럿 들어와주셨다.

책방 행사 중 늘 인기가 있는 것은 저자와의 만남이다. 독립서점이니 베스트셀러 작가 중심으로 기획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지역출판사에서 책을 낸 작가, 서점 근처에 살고 있는 작가, 좋은 책을 출간했지만 대중적으로 덜 알려진 작가 등을 발굴해서 독자와 만날 수 있는 명석을 까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즘은 이런 기획을 좋게 봐주는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하고, 행사는 이따금씩 조기마감이 되어 사장님과 나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독립서점의 특성 중 하나는 창작과 수용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읽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잘 어우러지는 공간이랄까. 그래서 독립출판 글쓰기워크숍, '그을린 예술'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집필프로젝

트 등도 진행하였다. 북노마드 출판사 대표님을 모셔서 출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워크숍도 꾸준히 하고 있다. 박조건형 작가와 함께한 일상드로잉 워크숍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을 벌이겠지만 그것이 무엇이어도 '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늘 노력할 것이다.

책공간의 따뜻한 연결을 꿈꾸는 '매일매일 책봄'

작년 독서문화축제기간 중 '책과 아이들'에서 교류회가 열렸다. 부산에 있는 출판사, 동네서점 등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나는 약간 너스레를 떨면서 자기소개했다. '출판, 서점계의 흥반장을 꿈꾸고 있는 썩반장입니다라고, 썩반장의 이름으로 우리서점을 넘어서 여러 공간과 함께 해본 행사가 바로 '매일매일 책봄'이다.

울분 온천천 근처에 있는 책공간책과아이들, 책방숲, 책방 카프카의밤, 비온후출판사들이 작은 축제를 벌였다. 평소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온천천에 있는 책공간들이 재미있는 걸 같이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반년 정도 여기저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 소박하게 스탬프 투어로 시작한 기획은 한 차례의 회의를 거쳐 멋진 축제로 거듭났다. 보름짜리 행사를 단 두 시간의 미팅으로 만들어내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오기는 할까? 일단 우리끼리라도 즐겨보자는 마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서점을 찾아 주었다. '따로 또 같이'를 제대로 구현했고, 행사를 마무리할 때는 따뜻한 덕담이 오갔다. 회의나 포럼 형태의 딱딱한 연대가 아닌, 각자의 개성과 강점을 살린 느슨한 연결의 힘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오늘도 부산의 독립서점들은 고군분투 중

독립서점은 1호 서점인 '삼메이커즈'를 시작으로 최근 1년 동안 부쩍 수가 늘어 지금은 30여 곳에 이르고 있다. 내실 있는 큐레이션으로 애서인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스트로북스' 독보적 주제로 문을 열자마자 시선을 강탈

하고 있는 '자연과학책방 동주', 깊이 있는 디자인 서적을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아티스트 토크를 열고 있는 '책방숲', 20년이라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책과아이들', 전포동 카페거리에서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있는 '북그러움' 등 부산에는 개성 넘치는 서점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현재도 몇 개의 서점이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에 여행을 오는 타지인들도 이제 바다나 산복도로 등의 관광지뿐만 아니라 부산의 독립서점에도 관심을 넓히고 있다.

애뜻하게 아픈 말

언제인가 책방행사를 마치고 사장님과 조출한 단합대회를 가졌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썩반장님, 우리 오래오래 같이 해먹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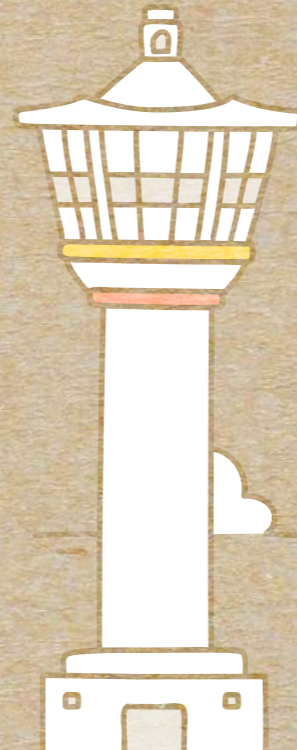
처음에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이고, 이게 무슨 어머머마하게 큰 회사도 아니고 '해먹다'니... 그런데 묘하게도 이 말은 진한 여운을 남겼다. 바쁜 일상에 지치거나 혹은 손님이 없는 날, 조금 울적한 기분이 들 때면 '오래오래'와 '해먹어요'가 번갈아가며 귀에서 메아리를 만들어냈다. 참 애뜻한 말이다.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북바이북'과 '북테크'가 최근 영업을 정리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저 정도의 서점도 결국 못 버티고 문을 닫다니. 그러니까 사장님이 맥주 한 잔과 함께 장난스레 던진 '오래오래 같이 해먹자'는 말은 실은 어머머마하게 큰 다짐이었던 거구나.

부산의 독립책방들이 각자의 실력으로 앞길을 열어나겠지만, 완전한 도서정가제의 구현과 유통구조 개선 등은 함께 지혜를 모을 일이다. 다양한 문화가 넘실대는 부산의 책바다, 독립책방들이 오늘도 무사하기를.



돌아와요 부산 鄉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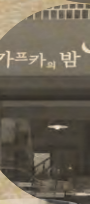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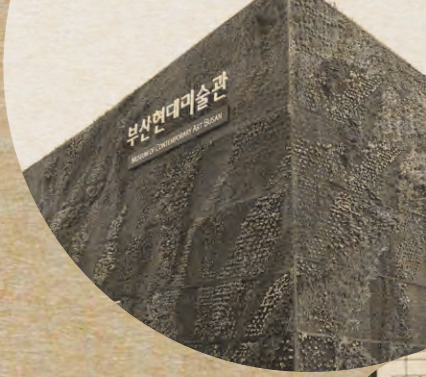


050 숨어있는 보물찾기 우암동 소막마을
- 나춘선 건전지(建展地) 대표, 부산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056 부산 연극 문화의 지평을 넓힌 프로페셔널 김동규 교수
- 김영은 '공감 그리고', 에디터

도시의 섬 매축지 골목
- 문진우 사진작가

064



숨어있는 보물찾기

우암동 소막마을

글 나춘선 건전지(建展地) 대표, 부산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수탈되는 소의 검역소와 소막사로 사용되었던 곳
한국전쟁기, 소막사와 피란수용소에 몰린 피란민들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곳
근대화기, 공업화로 인한 성장과 쇠퇴를 경험하며 시간이 멈춰버린 곳
한일관계사와 부산의 근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이 곳은
바로 부산광역시 우암동 소막마을이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

영화 '친구'에서 주인공 준석(유호성)은 재판장에서 남구 우암동 189번지가 본적이라고 말한다. 여기가 바로 적기뱃머리(아카사키; 赤崎)로 불리던 우암동 소막마을이다. 우암동 189번지는 영화감독곽경택 감독의 실제 본적이기도 하다. 과거 '소바우'라는 말에서 전례가 이어져 '우암(牛岩)'이라 불리게 된 우암동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수탈해 가기 위한 소를 검역하는 '수출우검역소'와 '소막사'가 만들어진다. 이는 우암동 소막마을이 지금의 공간 구조를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해방 후, 전쟁으로 피란민들은 일제히 부산으로 향하게 되는데, 당시 우암동에는 비교적 많은 피란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20여 동의 소막사와 소검역 관련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곳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피란민들이 억수로 내려왔는데, 우암시장 근처가 다 노다지 공터더라고. 이게 다 피란민들이 지은 집 아이기. 근데, 왜 이렇게 쪼매나게 지었냐면, 그때는 3개월만 지나면 통일되가고 간다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방 한 칸, 부엌 한 칸 하꼬방 같이 쪼매씩 지었다 아이기.” (함경도에서 피란오신 피란세대 할머니)

전쟁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은 산업화를 겪으며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철도와 도로가 들어서고 지리적으로 공장과 부두가 가까운 우암동에는 노동자들이 몰려들었고, 소막사 일대와 산비탈에는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우암동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요기가 얼마나 세월 좋았는데. 7부두 이 앞에 동명목재, 성창목재 있었제, 시장도 크고 장사도 한없이 잘되고, 오만 사람 다 왔다 아이기. 근데 지금은 거지 됐다. 돈 타 먹는 할매들밖에 없다.” (우암동에 시집와서 사신 지 50년 된 할머니)

1980년대 들어 석유파동과 국내의 어수선한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우암동 역시 또 한 번의 변화를 겪는다. 많은 기업들이 이 곳을 떠났고, 우암동 상권도 함께 쇠퇴해 갔다. 우암동에는 당시 않았던 손길만큼이나 곳곳에서 고스란히 남아있는 과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소막사와 그 주위를 에워싼 낡은 집들, 망사처럼 얇힌 골목들이 오늘날에도 옛 이야기를 말해주듯 그 터를 지키고 있다.

주민들과 함께 찾아나선 우암동의 보물

필자는 2016년 부산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우암동의 숨어있는 보물찾기(마을을 그리다, 이야기하다 그리고 함께 나누다)”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안정된 도시시민 주거지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사업과 협력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의식적인 예술교육의 의미가 아닌 삶 속에서 주민들이 예술활동가로서 지역의 활력을 충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16년 상반기에는 마을을 정확히 읽는 작업과 마을에 숨어있는 보물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마을지도그리기 프로그램을 총 12주에 걸쳐 진행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매개인력들이 기억에서 잃어버렸던 우암동의 역사적 가치를 주민과 함께 찾고 기록화하는 데 온 열정을 다했다.

“많이 알게 되었고, 주인의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 동네에 대해서, 우암동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곳까지 알게 된 거지요.” (주미옥 우암동 피란자산해설사)



2016년 하반기에는 우암동 동네공연극 ‘진품 명품 쇼’를 진행하였는데, 마을의 보물을 찾아 길을 떠난 탐험 팀(힐링팀, 우정팀, 은하수팀)이 ‘우암동 골든뷰’, ‘일치떡메’, ‘우암동 이야기책’을 주제로 태어나 처음으로 연극이란 것을 경험했다. 기본 대사 연습에 들어가자, 할머니들이 너무 힘들다고 나오시지를 않자, 강사들이 직접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연극에 필요한 합창연습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이 동네공연극을 발표한 날은 동네 잔치일이 되어 오랜만에 주민들이 신나게 웃고 합





창하면서 하나가 되는 날이었다.

2017년 작년 한 해는 우암동에 숨은 보물을 널리 알리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1년 동안 우암동 피란자산해설사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마을해설사들은 앞으로 지어질 소막사전시관 및 주민커뮤니티시설을 거점공간으로 우암동 피란자산 역사문화투어와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2년간 우암동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면서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암동 달동네 성자로 불리셨던, ‘하 안토니오 몬시뇰’ 신부님은 우암동 주민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성인으로 남아있다. 우리보다 더 남북통일을 간절히 바랐던 신부님. 그래서 저희는 신부님을 만나 뵙고 돌아올 때는 항상 ‘우리의 소원’ 노래를 합창하고 돌아와야 했다.

사재를 털어 피란민을 구제하고 전쟁고아를 돌보는 교육사업에 헌신하셨으며, 1977년 조산원을 세워 1992년 문을 닫기까지 2만 6000여 명의 신생아가 이곳에서 탄생했다. 평생을 사리사욕 없이 봉사와 신앙, 신념으로 헌신해오신 하 안토니오 신부님은 안타깝게도 작년 10월에 노환으로 선종하셨다.

또한, 이 곳에는 부산 최초의 밀면집인 ‘내호냉면’이 있다. 내호냉면이 부산에서 문을 연 것은 1953년이지만, 진짜 뿌리는 1919년 흥남의 ‘동춘면옥이 흥남철수 후 우암동에 자리 잡으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피란음식 밀면의 효시가 되었다. 그 전쟁 당시에는 메밀가루나 고구마전분을 구하기가 어려워 미군부대에서 밀가루를 얻어 반죽을 했는데, 이게 시작이었다고 한다.

근현대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의 중심에서

우암동 소막마을과 인연을 가진 지 어언 2년 반, 많은 주민분들이 우암동 숨어 있는 보물창고를 함께해주셨다.

한국전쟁 당시 김일성대학에 재학했던 피란1세대 홍현진 선생님, 우리마을 건물의 반은 내가 다 지었다고 주장하시는 우암동 목수 전일수 선생님, ‘나는 키가 작고 배운 게 없어’라고 하지만, 지혜롭고 봉사로 일생을 지내오신 박남선 선생님, 소막사에서 태어나 ‘적기쇼핑백’이란 상호로 생업을 하고 계신 우암동 지킴이 조재식 선생님, 피란2세대로 통기타를 잘 치시는 항상 유쾌하신 유평년 선생님, 마을기자, 건강마을활동가, 피란자산해설사 등 우암동 열정우먼 주미옥 선생님, 붓글씨를 열심히 배우며 우암동을 기록화하고 계시는 광정희 선생님, 남성금지구역이었던 옛 광명목재 기숙사에 살고 계시는 권옥순 선생님, 30년간 우암동에서 봉사해 오신 피란자산해설사 대표주자 전은재 선생님, 부모님이 흥남에서 배타고 내려오셨고 우암동에서 태어나신 피란자산해설사 공경식 회장님, 친구인 박남선 할머니 따라 놀러왔다가 해설사교육에 더 빠져버린 윤한옥 선생님,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난리를 겪어본 적이 없어 우암동을 사랑한다는 이경숙 선생님,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소한 재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사온 지 2년차 새내기 박순녀 선생님, 우암동 주민들과 동고동락 한 지도 올해로 어언 3년째인 마을활동가 김찬년 선생님, 4대째 살고 있고, 집 근처 오래된 우물 3개를 다 막아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김갑순 선생님 등 함께해주신 많은 우암동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우암동 소막사건축물은 해방 이후 귀환 동포와 한국전쟁 중 부산으로 밀려드는 피란민들의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해 ‘소막사’를 주거 시설로 변용한 곳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관하는 ‘이것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5월에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현재는 소막사건축물 17가구를 부산시 남구에서 매입하여 ‘소막사전시관 및 주민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피란자산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곳 우암동 소막마을은 부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근현대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과 ‘피란수도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사업’의 그 중심축에 우뚝 서있다. 주민이 마을에 대한 희망을 품고 서로 어우러져 함께하는 우암동 소막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시재생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주민이 다 함께 행복한 문화공동체 소막마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 연극 문화의 지평을 넓힌 프로페셔널

前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김동규 교수

인터뷰 김영은 『공감 그리고』 에디터



필
1964 <뚝대로 하세요> 기획 / W.셰익스피어 작, 민중극장 제3회 공연(서울국립극장) / 셰익스피어 탄생 400주년 기념축전 참가작
1964 <도적들의 무도회> 기획 / J.아누이 작, 민중극장 제4회 공연(서울국립극장) / 제1회 한국일보 연극영화대상(현 백상대상) 수상
1966 <은하수를 아시나요> 연출 / K.비틀링거 작, 중앙대OB공연(신신예식장)
1967 <트로이의 여인들> 연출 / 유리피데스 작, 한성여대 제2회 공연(한성강당)
1974 <연인 만나> 연출 / 사르트르 작, 원형극장 창립공연(부산시민회관 소극장)
1984 <안티고네> 지도교수 / 소포클레스 작, 연극영화학과 창립 제1회 공연(경성대학교 콘서트홀)
1992 <대머리 여가수> 연출 / 이오네스코 작, 원형극장 제4회 공연(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부산상공회의소 예술대상
1998 <자갈치> 연출 / 이현대 작, 부산시립극단 창단공연(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4 제1회 부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 역임(~2010 제7회)
2009 세계공연예술교류연합회(IPAEA, 전신 세계축제연합회) 세계회장 피선 창립 출발 선언 : 폴란드 바르샤바(나우리극장)

연극의 매력에 푹 빠져 연극 외길만 걸어들었다. 인생의 대부분을 대학과 부산 연극계를 맴돌았고, 부산의 연극사를 직접 쓰기도 하면서 평생을 연극 문화의 지평을 확장하는 일에 종사해왔다. 1982년 추풍령 이남 최초로 경성대학교 예술대학에 연극영화학과를 만든 김동규 교수의 이야기이다. 그를 만나 그의 연극 인생과 부산 연극에 대한 따뜻하고도 따끔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Q. 언제부터 연극을 시작했으며, 매력을 느낀 계기는 무엇입니까?

원래는 학부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서 어렵게 신필름¹⁾에 입사했는데, 영화와 인연이 없었던지 입사 1개월 4일 만에 모교에서 조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학과장님이 지도하시는 영어극 <우리 읍내>의 무대감독을 맡게 되면서 그 작품에 큰 감명을 받았습시다. 그러면서 연극의 매력과 깊이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서울의 민중극장을 필두로 하여 계속 연극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Q. 초창기에 기획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주신다면?

본격적으로 연극 제작에 뛰어든 건 1965년 고향인 부산에 내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저의 영화 지도교수였던 김정옥 교수님과 연극 지도교수였던 양광남 교수님 두 분께서 민중극장²⁾의 멤버였던 덕분에 그

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1964년 4월 셰익스피어 탄생 400주년 기념작 <뚝대로 하세요>란 작품을 김정옥 교수와 공동 기획했고, 같은 해 11월 장 아누이 작 <도적들의 무도회>도 공동으로 기획하여 지금의 백상예술대상인 제1회 한국일보 연극영화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후 잠시 고향인 부산에 왔다가 동문 후배들을 만나 부산 최초로 반연극(Anti Theater)³⁾한 편을 공연하고자 의기투합해서 연습에 들어갔는데, 갑작스레 여자 연기자 두 사람이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했죠. 그래서 남자만 출연하는 <은하수를 아시나요>로 작품을 바꿔 공연하게 됐습니다. 2명의 배우가 총 13역을 해야 하는 스피디한 연극인데 당시 신선하고 충격적인 연출로 호평을 받았습시다. 당초의 반연극 공연을 못하게 된 것이 다음 작품인 <은하수를 아시나요>를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자극제가 되어 더 좋은 공연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1960년 신상옥 감독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기업형 영화사
2) 1963년에 창단된 동인 극단. 소위 '유학파'로 지칭되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민중 속에 뛰어 들어가 민중과 더불어 호흡할 수 있는 연극 모색과 위대한 연극 유산'을 계승하고 새로운 미래연극 추구를 목표로 하였다.
3) 1960년 공연된 이오네스코의 <대머리 여가수>를 통해 처음 사용된 명칭으로, 비현실적인 장면, 비논리적인 극행동, 우연적인 요소 등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여 기존의 리얼리즘 전통을 부정하는 연극

Q.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창설하게 되신 배경은 무엇입니까?

서울로 가지 않고 부산에 정착할 결심을 굳히고, 현 경성대학교의 전신인 한성여대 방송과에서 시간강사 역임 후 1968년에 전임강사가 되었습니다. 틈틈이 연극 활동을 하려 해도 쉽지 않았고, 특히 부산의 문화 관련 공무원들은 연극을 '전문집단'이 아니라 '취미집단'이라고 얕잡아보고 백안시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년제 초급대학이었던 한성여대가 4년제 부산산업대학교로 바뀌면서 제가 소속된 방송과가 폐과가 되어 소속 없이 3년을 공중에 뜨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연극영화 전공자 상당수가 부산에서 배울 곳이 없어 서울로 가는 데 착안해 부산의 연극영화전공 학과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재단 본부에 요청하자 재단에서도 3년 동안 문교부에 신청했으나 연극영화학과를 따내지 못했다면서 1982년 봄 저에게 직접 움직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청하기에 직접 나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산의 주요 신문에 음악·미술 교육은 많은데, 연극영화 관련 학과가 대학에 없는 현실을 진단하는 기사를 쓰게 해서 자료로 스크랩한 뒤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부산예총) 김창배 당시 회장과 상의해 이 지역에 연극영화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기사 자료를 첨부하여 문교부 대학교육국에 예총 명의로 학과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밖에도 서울에 있는 한국연극협회와 한국영화인 협회를 통해서도 지역에 연극영화 교육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탄원서를 넣고, 직접 문교부 장관 비서실장을 만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 해 6월 부산예총에 '귀하께서 제출한 부산 소재 대학 내의 예술계 학과 신설 건의에 대하여서는 83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시 참고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교부의 긍정적인 회신이 왔고, 10월에는 '83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결과 통보'에 30명의 정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재단이나 학교 당국을 통해 신청하지 않고 부산예총을 통해 건의한 것이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연극영화학과가 부산산업대학교 예술대학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공학과 창설 배경은 한 마디로 서울까지 가지 말고 부산에서도 공부할 수 있게 했다는 점과 연극인들이 '취미단체, 아마추어단체' 취급 받지 말고 '전문단체, 직업단체'로 대접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신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교수 재직 당시 학과를 어떻게 꾸려 나갔습니까?

전임교수는 멀리 내다보고 당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의 젊은 조교를 전임으로 영입하였고, 교과 편성은 기존 연극영화과(중앙대, 동국대, 한양대)들이 가진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완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선배도 없는 우리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이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 편성에 특별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를 테면 경성대에만 있는 특별한 교과과정을 추가했는데, 바로 3학년에서 전공이 나뉘기 직전 학기인 2학년 2학기에 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 공연 시간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실 40명 규모의 인원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작품으로는 코러스⁴⁾가 들어가는 고전 그리스 극 이상 없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물론 예술학적⁵⁾으로나 미학적으로도 뛰어난 고전을 학부생들이 직접 접할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혁신적인 시도였지요. 연극영화학과가 있는 타 대학들의 부러움을 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프랑스로 유학 간 학생 중에서는 학부 시절 (안



티고네)나 <오이디푸스>와 같은 그리스 고전극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리 국립연극학교 입학에 특혜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학과의 창립 취지와 열정이 전통으로 잘 계승되고 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Q.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어디에 중점을 두었습니까?

학과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선배가 없는 학생들의 의식구조를 어떻게 다져야 할지가 제일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스승이자 선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술 표현의 본질인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라'는 것부터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본질로 바탕에 깔아야 극화, 비약, 상징이 가능해집니다. 진실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성을 키우고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또한 초대 학과장으로서 어느 한 쪽에 기울지 않고 모든 일을 냉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 했습니다. 철저히 악역을 자청한 거죠.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대로만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지 학생들 사이에서 '학점을 잘 안 주는 딱딱한 교수'로 소문이 났지만, 나중에는 노력한 것만큼 학점이 나오더라고 바뀌었죠. 누구 하나 편애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퇴임 후 돌이켜보니 학생들한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콧꽃하기만 했지 좀더 개인인을 따뜻하게 보듬고 개성 개발에 힘썼더라면 제자들이 더 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기라는 건 세 사람한테 같은 대본을 쥐도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전부 다르게 나오기 마련인데,

제자들에게 내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것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반성하던 도중 어느 고아원에서 화술을 지도할 기회가 생겨서 이 아이들만큼은 개성껏 가르쳐보자 해서, 연극 각본을 써보는 시간에 무엇을 쓰라고 정해주지 않고 '가장 쓰고 싶은 걸 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읽지도 못하던 학생들이 입모양을 교정하고, 말을 천천히 하도록 유도하는 등 3/4 칭찬에 1/4 교정 지도만으로도 일취월장하더라고요. 졸업생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다양하게 다가가다면 다가가면 만큼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았겠냐고.

Q.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극단을 창단하신 이유와 과정을 소개하신다면?

공연으로 연극 문화의 폭을 넓히면서 권위를 보전하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 예산을 비롯한 극장과 연극 제작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추어 연극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한 끝에 고안한 것이 시립극단이었습니다. 이것은 60년대 중반 고향인 부산의 어느 예식장에서 어렵사리 공연한 제 경험이 토대가 되어 갖추어진 극장, 보장되는 예산, 장치·의상·조명·음향이 제대로 갖추어진 모범적이고 당당한 연극 공연을 수행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차원에서 시립극단을 구상했고, 연극 관련 세미나 강연이 있을 때마다 시립극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80년대 들어 전공학과가 대학에 개설되었으나 이들의 진로가 막막했습니다. 90년대 중반 부산국제영화제가 창설됨으로써 영화 전공 학생에게는 진로가 열린 셈이었지만, 연극에는 길이 없던 차 97년 문정수 당시 부산시장과 독대의 기회가 있어, 시립극단의 필

4) 초기 그리스 비극의 필수 요소로, 극 안에서 등장인물과 소통하기도 하고 극 바깥에서 관객과 소통하기도 하는 등 극적 행동에 적극 참여하며 연극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5) 완성된 예술작품만 감상의 대상으로 삼는 미학적 입장뿐만 아니라 작품을 완성하기까지의 물질적, 정신적 작가의 고뇌까지도 예술 창작이나 완성의 요소로 포함시켜 평가하는 입장

요성을 강조했더니 흔쾌히 받아들여져 98년에 창단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더 욕심을 갖고 세계적인 연출가를 초청하기 위해 숙소까지 얻어내려 했죠. 그런데 예술감독은 저 혼자가 아닌 부산 연극인 여러 사람이고 저에게는 예술감독위원장이란 세상에 들도 없는 요상한 감투를 씌웠습니다. 1년 뒤에 사라진 예술감독위원장 제도가 왜 그때 생겼을까. 나는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시립극단만 창단해주고 물러나야 했는데, 창립 일정 때문에 차일피일 하다가 창단공연 <자갈치> 연출까지 마치고 그해 연말에 빠져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연출가를 부산에 초빙하여 숙소까지 보장해서 품위 있는 정통 연극을 뽑아낼 꿈은 접어야 했지요. 예술감독은 작품만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예산을 늘리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창설 당시 예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니 역대 예술감독들은 무얼 했을까요. 영세 극단에서도 하는 소극장 공연까지 시립극단에서 마다하지 않는 현실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학의 학과 창설이나 시립극단 창단이나 모두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승하는 작업은 더 어렵습니다. 창설·창단 취지가 창달로 성공하느냐,

무의미한 해프닝으로 끝나느냐는 전적으로 계승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계승자야말로 제2의 창단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초대 부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이었는데, 부산국제연극제의 기획 배경이 궁금합니다.

부산국제연극제의 최초 발상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산연극협회에서 시 예산 1억을 확보한 후 일이 잘 추진되지 않자 저에게 의뢰해온 것으로 압니다. 제가 추진할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세 번이나 사양했습니다만, 부산연극협회 내의 국제연극제추진위원 전원이 백지 위임을 해왔기 때문에 억지로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구상이 없는 데다 사무실도, 전화기도 한 대 없이 8월인 행사를 3월 중순에야 떠맡게 되었습니다. 무슨 방향이라도 잡아보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는데 당시 국제극협회(ITI, International Theater Institute) 한국 회장을 만나 멕시코에서 열리는 ITI 총회에 동행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산국제연극제를 홍보해서 참가할 극단을 끌어 모아보자는 생각으로 제1회 부산국제연극제의 콘셉트를 <시민에게 웃음을(Laughing to All)>로



정하고 기획서를 만들어 멕시코 ITI 총회 현장에서 나누어주었습니다. 반응은 매우 좋아서 추천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용기를 얻어 ITI 프로그램까지 가미해서 웃음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작품 섭외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코 스포시극단의 작품 <충돌(Crash)>을 초청한 것이 부산국제연극제를 제2회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웃음이 폭발했고, 콘셉트 축제의 가능성과 효용성을 모두 충족시켜 일단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웃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내륙 지방과 바닷가를 대비시켜 부산의 개성을 찾고자 한 것이 적중한 것 같습니다. 즉, 부산>개방적>시끌벅적>동적>희극적>웃음으로 유도된 것입니다.

Q. 지금의 부산국제연극제에 대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7년이나 몸담았던 곳이라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한 마디로 이 축제가 확대되어 발전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되면서 힘을 잃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째 부산국제연극제는 콘셉트 연극제로 출발했습니다. 매년 다른 콘셉트로 선정된 작품을 만나는 것이 특징이었지만, 최근의 <유희·해양·축제>는 콘셉트인지 축제의 개요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콘셉트를 매년 바꾸면 작품 선정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축제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콘셉트로 관객의 주의를 끌어서 선정된 작품으로 관객에게 봉사하고 다가서는 노력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콘셉트는 모든 축제의 공통된 개요 수준으로 작품 선정도 '주최자 마음대로'입니다. 때문에 주최자가 선정한 작품

만 보면 된다는 안이함과 관객에게 다가서려는 성의나 노력이 보이지 않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매년 바뀌는 콘셉트로 축제를 열려면 정보가 많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모터들이 축제에 많이 참여해야 축제가 살아납니다. 반면, 변함없는 콘셉트는 동시에 프로모터가 없는 축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청받은 참가단체뿐이라면 축제는 쓸쓸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아마추어나 일반 시민들이 꼭 연극이라는 틀이 아니라도 마음대로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든 10분 연극제가 언제부터인가 연극 전공 대학생들이 참가해서 상급까지 받아 간다니 아이들 놀이에 어른이 끼어든 듯 보입니다. 이쯤도 비슷한 부산국제연극제와 부산국제연극제가 형식도 비슷한 10분 연극제와 30분 시민 연극제로 중복되어 혼돈스럽습니다. 어느 쪽에서인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전공 대학생들의 10분 연극제 참여는 들어설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전공 학생은 전공 학생다운 참여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집행위원장의 역할입니다. 축제 진행도 진행이지만 무엇보다 예산 확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12년의 국비 1억 증액은 2010년도 실적을 토대로 2011년에 정리 반영해서 2012년에 인상된 국비예산입니다. 그 이후로는 인상된 기미가 없고 6년간 예산 증액이 없다는 것은 전체 예산의 약 18프로 감축된 액수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도 국제행사를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데 더 이상 차고 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주저앉으면 위험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과감히 프로그램을 조정 정리하고 작품 선정과 관객 확보에 저돌적으로 도전하면서 꾸준히 예산을 증액해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

다. 축제를 너무 쉽게 끌고 가는 것 같아서 분발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Q. <부산연극사>를 편찬하시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부산 연극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뿌리는 알고 연극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뿌리를 밝혀주는 것도 제 소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성대학교 공연예술연구소를 만들고 부산의 연극사를 집필하기 위해 한창 자료를 모으고 있던 차에 때마침 부산시에서 각 분야의 시사(市史)를 만드는 데 연극사 집필위원으로 위촉되어 연극사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극사를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영영 못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나이가 들면 연대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날카롭게 역사를 파헤치기 힘들었을 것이고, 둘째는 부산 연극의 뼈대를 세우는 데 기여하신 분들 가운데 향파 이주홍 선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당시 부산의 연극 현실을 육성으로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예술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해방 직후는 고등학교 연극이 주축이 되었는데, 그때 중심이 되었던 학교가 동래중학교(현 동래고)였습니다. 작품 제목은 모두 정리되었는데 연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는 당시 재학생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선후배 간의 기억을 대조해 몇 학년 때인가를 더듬어 연대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1990년에 <부산시사(연극편)> 집필위원으로 위촉되어 1991년에 시사를 완성했고, 자료를 더 보완해서 1997년에 지역 연극사로는 전국 최초로 부산연극사를 단행본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Q. 다른 공연예술과는 다른 연극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연극을 학문에 비유하자면 가장 인간적인 학문을 '연극학'이라고 합니다. 언어생활을 비롯해서 인간 생활



과 가장 밀접해있는 예술 형태이기 때문이겠죠. 관객은 물론이고 배우와 배우 사이, 배우와 연출자 사이에서도 작품 속에 내재된 감정의 본질을 주문하고 표현했을 때, 또는 관객이 느끼는 감정과 일치했을 때 일종의 희열(Ecstasy)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단순한 이성 간의 사랑이나 부부 간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경지입니다. 이런 경지가 관객들과도 교류된다면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매료될 뿐만 아니라, 연극은 살아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 교류이기 때문에 영화나 소설 같은 다른 매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연극 고유의 매력일까요, 전을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관련 지원 제도 및 사업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난날 부산문화재단의 어느 회의석상에서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단 입장에서는 6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이 10을 만드는 데 필요한 4를 지원해 준다면, 그 4를 받아서 정말로 10을 만들어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10을 만들기는커녕 그보다 못한 결과를 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지원인데, 철저하게 전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원제도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꼭 지원해야 할 곳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은 쉽지만 효과 측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고 지원하는 경우와 장기

적인 안목에서 지금 지원하면 5년, 10년 후에는 이런 결과를 거양할 수 있겠다는 영향을 미치는 지원도 있을 것입니다.

효과 측정이 되지 않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왜 작품 활동을 안느냐'고 물으면 '한 2, 3년 쉬다가 지원 받아서 다시 하면 된다'고 하는 경우, 매년 지원받을 수 없어 차레를 기다리거나 매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좀 쉬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지원 신청 받아서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 때문에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지원만 했지 효과 측정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지원하면 지속적인 효과 측정과 검증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원 데이터를 수치화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지원 자체는 쉽지만 이런 전문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검증 요원의 전문직화가 필수적이라 사료됩니다.

Q. 지금의 부산 연극계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부산 연극계의 모두가 활발하게 공연 활동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만, 열성에 비해 프로 근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연극 공연 하나로 먹고 살아가야 하고, 모든 것을 공연 하나에 걸어야 합니다. 이런 치열한 의식이 부족하면 어디엔가 의지하려 합니다. 초대권이나 지원제도는 이런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부족한 점은 관객에게 연극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지금보다 더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본도 못보고 작품도 모르는 채 공연장에 오는 관객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감동의 박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공연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작품은 대표적인 부조리극 중 하나인데, 공연을 보러오는 관객들 중 부조리가 무엇인지, 부조리 연극이 무

엇을 다른 내용인지 아는 관객이 몇이나 될까요. 관객이 작품을 소화해서 잘 감상할 수 있도록 공연 전이나 공연 후에도 부조리의 개념이나 본질을 알기 쉽게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이 부조리의 개념을 이해한 뒤 <고도를 기다리며>를 감상한다면 작품 속의 메시지가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자신의 삶 속에 작품 내용이 덮쳐오면서 작품의 뜻이 강하게 보는 사람을 자극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오늘 이루어지지 않듯이 작품의 고도는 오늘 오지 않고 내일 온다고 합니다.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비취질 것이고, 이것이 인간들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기묘한 희열에 빠질 것입니다. 관객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을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사람이 연출자이고, 연출자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배우요, 그밖의 보조수단들인 장치·조명·음악 등입니다. 때문에 한 번 온 관객에게 연극 내용을 100% 이해하게 만들고 연극의 매력에 빠뜨려야 합니다. 부산 연극이 부족한 이 두 가지를 보장한다면 위상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Q. 향후 활동 계획에 관해 들려주십시오.

우리나라는 대사 위주의 작품을 많이 공연하는데, 언어극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많은 연극인들 중에는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만 통한다는 제한이 있어, 흔히 '로컬(국지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체극을 세계 공통어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판토크림 입문서도 한 권 낸 적 있고, 판토크림을 하는 제자들도 있어서 멋진 신체극 대본을 한 편 만들어서 제가 직접 지도하고 연출해서 예든버러나 아미농 같은 곳에서 공연해보고 싶습니다. 못하면 부산에서만이라도 한 번 공연해봤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희망 사항입니다.

도시의 섬 매축지 골목

글·사진 문진우 사진작가



아침부터 장맛비가 주룩주룩이다.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서니 골목 분위기가 을씨년스럽다.
한국형 누아르영화 <아저씨>, <친구> 속의 분위기 그대로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우산을 쓰고 착화탄에 불을 붙이고 있다.
아마 연탄불을 붙이려는 모양이다. 이곳 사람들의 삶의 단면이 보인다.
매축지란 동네는 수십 년 전에 시간이 멈춰진 듯 많이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마치 도시의 섬과 같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분위기만 있는 게 아니다.
사실 평소에는 사람냄새 가득한 동네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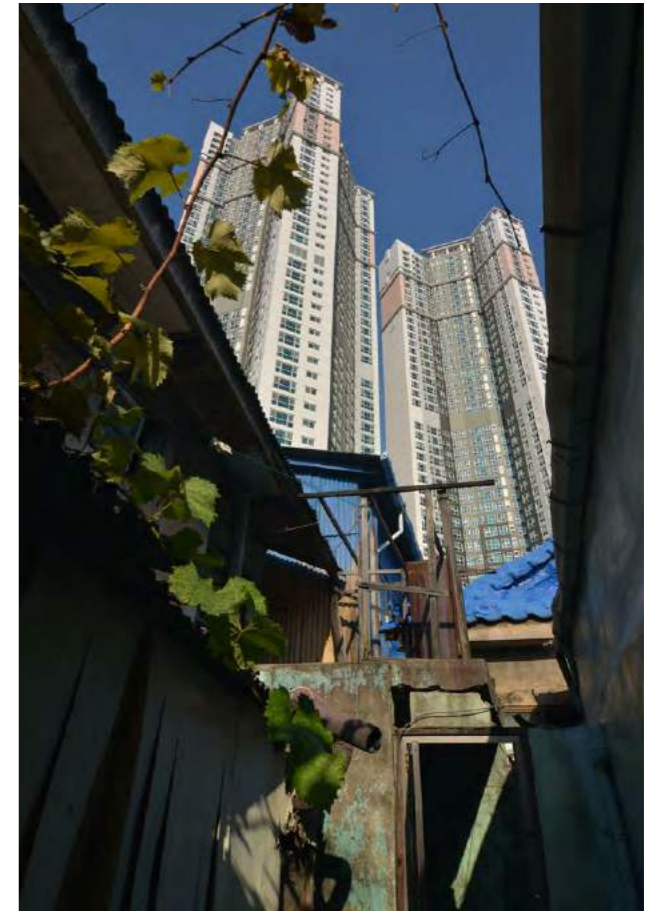
매축지에는 유난히 골목이 많다. 높은 곳에서 보면 가로로 세로로 바둑판 같이 촘촘하다.
여기의 골목은 단순히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골목에 놓인 연탄난로에 요리를 할 때는 주방이요, 세탁기를 돌릴 땐 뒷베란다,
빨래를 널 때는 앞 베란다이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할 땐 집 거실이 된다.
화분들이 옹기종기 놓여있는 골목은 정원이 되는 셈이다.

매축지의 골목은 이곳 사람들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공간이다.
특히 올해 같이 더운 여름이면 매축지 골목은 더위 식히는 데 한몫 톡톡히 한다.
골목의 골을 타고 들어오는 골바람은 에어컨바람 부럽지 않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골목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운다.

이곳 매축지는 일제강점기에 부산항 매축사업으로 형성된 공간이다.
 매립완료시점이 중일전쟁과 2차 대전이 일어난 시기(1937년~1945년)라
 전장으로 보내는 말을 먹이기 위해 마사가 지어졌었다.
 이후 해방을 맞이하면서 귀환 동포들과 한국전쟁 피란민들이 마사를 개조해
 생활하면서 생겨난 마을이다.



최근 이 동네 주변부에 하늘을 찌를 듯한 아파트 두 동이 들어섰다.
 그리고 나머지의 일부 공간도 조만간 재개발한다고 한다.
 이제 대한민국 근대사와 함께해온 공간 하나가 또 사라지게 된다.
 워낙 낙후된 공간이기 때문에 언젠가 개발이 되어야겠지만
 아쉬운 마음을 저버릴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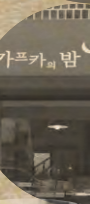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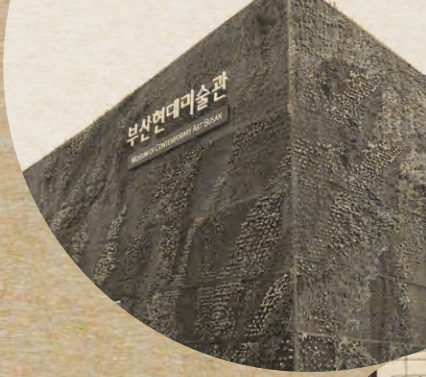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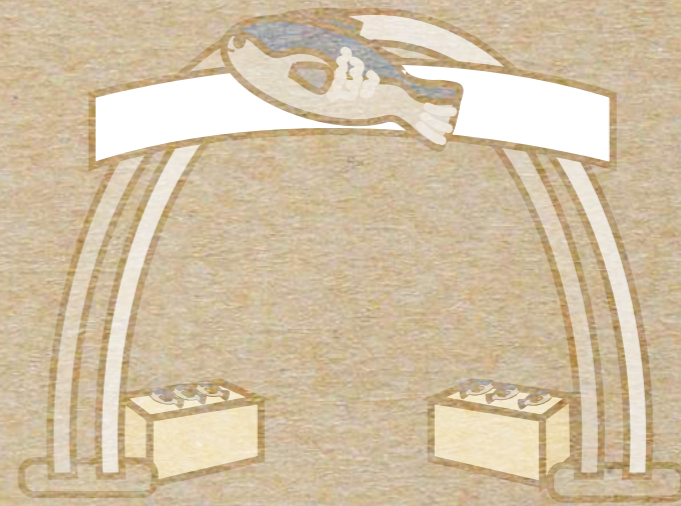
그리고 재단



072 문화예술 매개자의 역할과 가치에 주목하며 부산문화재단에 바란다!
-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074 삶의 씬표, 부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 안혜민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CM

주요행사 076



「2018 부산문화예술 교육인력 연수 A.B.C. SCHOOL」 참여자에게 묻다

문화예술 매개자의 역할과 가치에 주목하며 부산문화재단에 바란다!

정리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몇 해 전부터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하고 즐기는 <생활문화> 등이 화두로 떠오르며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지역과 사람 그리고 지역성을 이해하고 지역문화의 창의력을 높여나가는 문화예술 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재단은 작년,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개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교육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총 8개월의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활동가와 매개자의 대상별, 수준별 연수 커리큘럼을 개발했고 올 여름 <A.B.C. SCHOOL>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된 연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A.B.C.(A-art, B-busan, C-culture) SCHOOL은 그동안 부산문화재단이 실시해온 예술 교육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 장르, 내용에 대한 융합적 접근을 통해 '부산다운' 문화예술 교육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발한 상설 연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예비인력의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기본소양교육, 강사-기획자 역량강화 교육 등 총 3개의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였다.

향후 중급, 고급, 지도자 과정을 차례로 개발하여 지역 문화예술 매개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고자 한다. 그럼 실제로 교육과정에 참가한 분들은 문화예술교육 매개자의 역량강화 및 양성을 위해 어떤 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참여자들에게 물었다.

◎ 연수 시스템이 부산에 정착할 수 있길 바라요!

-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담당자의 변경과 또는 예산 문제로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없을까 걱정입니다. 기초과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준별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운영해주세요.

◎ 연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세요!

- 실력이나 경험이 부족해도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연수를 통해 자발적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으로서의 활동 가능성을 열어주세요.

◎ 프로그램 적극 홍보해주세요!

- 이런 수업이 좀 더 많아졌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지원사업의 선정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주세요.

- 지원사업의 심사는 1차 서류, 2차 인터뷰 심사까지 진행됩니다. 1차 서류에서 탈락한 단체는 기획서의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0번을 지원했는데 10번 모두 1차 탈락했다면, 이 단체는 기획의 역량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유에 대한 피드백이 있다면 매개인력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연구를 위한 '장'을 마련해주세요!

- 좋은 프로그램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부산에서도 매개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예술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환경조성!

- 다양한 내용의 교육들이 한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변용되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단계별, 장르별로 새로운 수업 내용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업부터, 이론의 강화교육까지 다양한 교육이 만들어지고 많은 매개인력 선생님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개설해주세요!

◎ 실기 중심의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상시 개설!

◎ 다양한 시간의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선택의 여지가 많았으면!

삶의 쉼표, 부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글 안혜민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CM

영화 <레고 무비>의 주인공 에밋은 설명서에 정해진 순서대로 하루를 시작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샤워하고, 운동하고, 일터에 나가 동료들과 공허한 대화를 나누다가 유일한 친구인 화분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게 다 근사해'라는 의미 없는 노래를 들으며 언제나처럼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에밋의 삶은 '저녁 없는 삶'을 지내온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삶과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였다.



근무 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얼마 전부터 직장인들에게 큰 화두로 떠오른 단어 '워라벨'. 워라벨은 '일과 삶의 균형'이란 뜻으로 워크(Work)와 라이프 밸런스(Life Balance)의 준말이다.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7월 1일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본격 시행됐는데 직장인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뉴스¹⁾에서는 <52시간 시대 오니 영화관이 웃는다>라는 제목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사실상 첫날이었던 7월 2일은 장마로 인해 비가 그렇게 왔는데도 전주보다 관람객이 16%나 늘었다는 수치를 보이며 직장인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주 52시간 근무는 워라벨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예술계에서도 주중 8시 공연을 7시 30분으로 앞당긴다거나 저녁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식사와 공연 티켓 값을 묶어서 할인해주는 패키지를 선보이는 등 여가시간이 생긴 직장인들을 잡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 SBS뉴스, 2018년 7월 5일, [친절한 경제] '52시간 시대 오니 영화관이 웃는다'

오늘, 여러분의 쉼표는 무엇과 함께했나요?

부산문화재단은 지난 5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산문화재단 캠페인 문구' 공모를 진행했다. 캠페인 문구는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통해 재단의 대외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자, 캠페인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드는 재단 홍보를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직원들의 적극 참여로 총 15개의 문구가 접수되었으며 내부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문구는 <삶의 쉼표, 부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였다. 이 문구는 바쁜 일상 속,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여유를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부산문화재단이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제안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은 일상 속 곳곳에서 이 문구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바쁜 일상 속 꿀 같은 쉼표에 문화가 함께할 수 있도록, 내일을 위한 쉼표 저녁이 문화로 채워질 수 있도록, 재단은 일상의 쉼표를 위해 매주, 매월 크고 작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로 늘어난 삶의 쉼표를 부산문화재단과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

7월 Information
주요행사

JUL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우리가락 우리마당 부산시민공원 혼적극장 홍타아트센터 6기 입주예술가 릴레이 개인전 전시(이항안) ~ 7. 13.(금) 홍타아트센터	2 ~ 7. 29.(일) 감만창의문화촌 입주작가 프로젝트 (김미영) '생존과 멸종 사이' 전시 감만창의문화촌	3 	4	5	6	7 조선통신사 역사관 인문학강좌 <조선통신사 해신제 음식 재현> 조선통신사 역사관
8 우리가락 우리마당 부산시민공원 혼적극장	9	10 	11 청년문화 네트워크 포럼 5회차 <직업탐구생활2 - 홀로적적> 사상인디스테이션	12	13 	14 북콘서트 - 섬에서 책 짓기 또는 책에서 섬 짓기 삼메이커즈 조선통신사 역사관 인문학강좌 <新조선통신사에서> 조선통신사 역사관 아트마켓 (AREA 051) 서면 동천로 일련
15	16	17	18	19	20 사상인디스테이션 인디페스티벌 <인디워홀> 사상인디스테이션	21 청년두드림 프로그램 - 우리들의 봉긋방 탐구생활 4회차 및 놀러와 2회차 운영 청년두드림 조선통신사 역사관 인문학강좌 <한일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조선통신사 역사관 <찾아가는 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F1963
22 	23	24 사상인디스테이션 서브컬처 기획전시 <초수퍼올트라판타스틱 만화방> ~ 8. 26. (일) 사상인디스테이션 청년두드림 전시 - 새벽넷이 청년두드림	25	26	27 	28 도시철표 : 여행을 노래하다 청년두드림
29	30	31				

8월 Information
주요행사

AUGUS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달리는 부산문화 국립부산과학관	
5	6	7 	8 ~ 8. 24. (금) 홍타아트센터 입주예술가 릴레이 개인전(안레비, 맷코크) 홍타아트센터	9	10 	11 세계인문학포럼 - 호모 스토리텔러: 부산의 골목을 기억하다 감만창의문화촌 북콘서트 - 책 낸 이후의 삶 북그려움
12 달리는 부산문화 국립부산과학관	13 	14	15 광복절	16	17	18 세계인문학포럼 - 호모 스토리텔러: 부산의 골목을 기억하다 감만창의문화촌
19	20 반딧불이 창작공간 3호점 - 한여름밤 동시 이야기마당 콘서트 반딧불이 3호점(감천동)	21	22	23	24 인문학동 지원 프로그램 <도시의 재구성 - 생태적 상상공유 포럼> 시청자미디어센터	25 세계인문학포럼 - 호모 스토리텔러: 부산의 골목을 기억하다 감만창의문화촌
26	27	28	29	30	31	

9월 Information 주요행사

SEPT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아트마켓 (AREA 05) 서면 동천로 일원 토요일 전통민속놀이마당 용두산공원
2	3	4	5 청년문화 네트워크 포럼 (예정)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6	7 인디페스티벌 인디 워 홀 (예정)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8 가을독서문화축제 ~ 9. 9. (일) 청소년북함문화센터 놀이마루 토요일 전통민속놀이마당 용두산공원 달리는 부산문화 이른가을나기 콘서트 F1963
9 2018 우리가락 우리마당 부산시민공원 흔적극장	10	11	12	13	14 입주예술가 (김원진) 전시 ~ 9. 28. (금) 홍티아트센터	15 감만창의문화촌 리서치 프로젝트 전시 ~ 10. 14. (일), 감만창의문화촌 1층 사랑방 전시실 우리들의 봉긋방 탐구생활 6회차 (예정)청년두드림 2층 Meeting Room 1 동네책방에서 만나는 당신의 인생책(4회차) 메멘토모리 책방 감만아트페스티벌 감만창의문화촌 북콘서트 - 동화에 대한 이해와 오해 메멘토모리 책방 토요일 전통민속놀이마당 용두산공원
16 2018 우리가락 우리마당 부산시민공원 흔적극장 달리는 부산문화 홍티아트센터 공연 홍티아트센터	17	18	19	20	21	22 토요일 전통민속놀이마당 용두산공원
23	24 추석	25	26 대체공휴일	27	28 인디페스티벌 인디 워 홀 (예정)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29 토요일 전통민속놀이마당 용두산공원 놀러와 3회차 (예정) 청년두드림 3층 엘테라스 아트마켓(AREA05)행사 서면 동천로
30						


부산문화의 모~든 소식 여기다있네!

#부산문화재단 SNS와 친구를 맺어야 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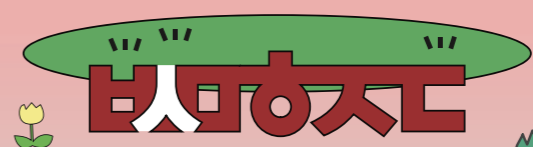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든
부산문화재단의
소식을 받을 수 있다.



부산문화재단과
실시간으로 1:1상담이
가능하다.







감만창의문화촌





 좋아요


 이웃신청


 <컬쳐Tube>
구독 신청


 팔로우


 엘로아이디
친구 추가

2017~2018 상반기
부산 출판사 신간도서

부산에서 만나는

책

들여다보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의 첫 단추!**

예술활동증명

먼저, 신청하세요!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02.3668.0200 / www.kawf.kr



산재보험 지원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신문고



법률 상담·컨설팅



심리상담



예술인파견지원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예술인패스



예술인재너돌봄 지원



창작준비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부산문화재단



계간지 「공감 그리고」 주요 배포처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배포를 희망하시는 문화공간이나 단체는 부산문화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745-7224)

감만창의문화촌/조선통신사역사관/CATs 사상인디스테이션/홍티아트센터/F1963/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도시철도 북 하우스(시청역, 중앙역, 연산역, 온천장역, 수정역)/부산관광안내소(노포동, 부산역, 김해공항)/부산시립시민도서관/부산시 중앙도서관/부산국립국악원/부산시립미술관/부산시민회관/부산문화회관/울속도문화회관/금정문화회관/동래문화회관/영도문화예술회관/해운대문화회관/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상상공간 아르케/토통이극장/부산지역 작은도서관 등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화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후원혜택 1

-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 재단 기념품 증정
-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시민평가단 우선순위 배정

후원혜택 2

- 일반회원 : 매월 1만 원 정액 납부
- 연간회원 : 매년 20~50만 원 정액 납부
- 평생회원 : 5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 단체회원 :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후원혜택 3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bscaf.or.kr ▶ 알림마당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 문의전화 : 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051-745-7252)